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5 PASK KOREA Photo Festa



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12.04 Thu - 12.07 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국내유일 -
사진예술 전문 대형 전시
올해 10회 대회 개최

전시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7시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주 최  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 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October 2025 Vol.543

Cover Story



이건목(평택지부)_칠면초

한 해에 일곱 번 시시각각
웃을 갈아 입는다하여
이름 지어진 칠면초

불이면 연꽃빛 생명으로
여름이면 선명한 붉음으로
가을이면 자줏빛 고요함으로
갯벌 위에 피어난다

차울랐던 물이 빠지면
하얗게 물결이 스며들어
자연과 공존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어낸다

카메라기종 Nikon
노출 130초



03

Headnote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부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32

전시광고

[이만우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기획 초대전
자작 : 침잠의 숲 - 이만우(대구)

36

전시광고

[조은자 개인전] 2025 공주 올해의 사진작가전
감각하는 시선의 색과 선 - 조은자(공주)

40

전시광고

[아홉번째 조로옥 사진전] 생명의 향기 품은 계절의 숨결
플라워 가든 Flower Garden - 조로옥(목포)

44

지상전 01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
사진가 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故 이경모

48

지상전 02

빛으로 남긴 한국사진예술 발자취
사광회 창립 70주년 - 한경자(대구)

52

Photo Essay 01

인간과 자연 해석한 폴란드 작가
마르친 리체크 Marcin Ryczek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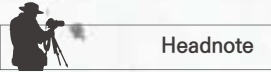
지상전 03

달빛 능선 너머 오로라 춤추는 얼음 땅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 고광중(광주)

60

Photo Essay 02

시대의 숨결 담아낸 삶의 기록
2025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Headnote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부쳐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고요히 다가왔습니다. 게으른 이에
게는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 부지런한 이에게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되는 이때, 선선한
바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길어진 빛은 풍경을 더욱 섬세하게 빚어냅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사진가에게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여름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는 드러
나지 않던 미묘한 빛의 결이, 투명한 하늘과 깊어진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
다.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사진은 이 계절에 한층 또렷한 생명을 얻고, 순간은 운명처럼 프레
임 속에 머뭙니다.

수확의 계절답게, 한 해 동안 쌓아온 땀과 정성은 이제 작품으로 맺혀 나옵니다. 들녘의 곡
식이 알차게 여물 듯, 사진가의 열정 또한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오늘의 기
록은 내일의 창작을 부르는 씨앗이 되어 또 다른 계절의 이야기를 열어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협회의 가장 큰 축제인 대한민국사진축전이 열립니다. 사진작가들의
열정과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빛나는 작품을 전시장에서 감상하게 되길 기대합니
다.

전국 회원 여러분, 이번 10월호를 펼치며 각자의 사진 여정에 새로운 울림을 얻으시길 바
랍니다. 서로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그 빛을 더해가는 시간이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오
래도록 머무르게 하리라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높아가는 하늘 아래, 회원 여러분의 창작 여정이 더
욱 무르익고 성숙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 향 룡

Contents

October 2025 Vol.543



52

60

78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5년 10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64 **KYOTOGRAPHIE 2025**
꾸밈없는 격물치지, 사물의 본질을 본다
Eric Poitovin (에릭 푸이토뱅. 프랑스)
- 70 **사진강좌**
Photo Theory 01
역사를 기록하고 현실을 증언하라
AI 시대 사진이 사는 법 - 배택수
- 74 **Photo Theory 02**
AI 디지털아트 전문가 과정이 빛은 작품들
사진 이후의 사진 - 조주은
- 78 **Review & Preview**
닉 브랜트 사진전
The Day May Break 생존의 나날 - 김재훈
- 84 **Travel destination**
이젠 애니메이션 한류, 세계는 한국으로
케데헌 열풍 - 최승언

- 88 **협회소식**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 97 **업체소식**
Gallery
조은자 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北京国际摄影周
PHOTO BEIJING
2025

韩国 摄影 艺术展

10. 18. - 10. 27. 2025

Title 看见与思索
[板块一] 视线的记录 / [板块二] 思考的映射

参展艺术家
金正铉 崔次烈 白万钟 李香龙 李德晚 姜敦永 姜钟宽 金荣录
金容热 朴宪哉 吴文子 尹宝相 尹英女 尹洪宣 李基俊 李英淑
林万德 任成东 张英吉 丁钟官 崔根泰 崔延根 黄真伊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작가 모집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대한민국 사진예술을 대표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 사진예술 전문 대형 전시 문화행사이다.

본 행사는 2024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이어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사진작가, 사진업종사자에게 본 행사를 계기로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참여작가와 일반 대국민, 관람객, 사진애호가, 사진업종사자 등 사진예술 콘텐츠산업 대중화를 통해 경제적 도움과 세계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1. 개 요

- 사업명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영문명 2025 PASK KOREA Photo Festa
- 행사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12월 7일(일)
- 행사장소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3,793㎡, 약1,200평)
- 관람시간 10시 ~ 19시
-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2. 세부일정

- 개 전 식 2025년 12월 4일(목) 오후3시 (예정)
- 전시설치 2025년 12월 2일(화) ~ 12월 3일(수) (예정)
- 전시관람 2025년 12월 4일(목) ~ 12월 7일(일) 오전10시 ~ 오후7시
(단, 마지막날 관람은 오후4시까지 가능)
- 장학금수여식 2025년 12월 5일(금) 14시 (예정)
- 시상식 2025년 12월 7일(일) 13시 서울시일상사진공모전 & 청소년사진제 (예정)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5 PASK KOREA Photo Festa

3. 참가신청 접수방법

- 참가신청 접수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17(금)
- 신청절차



- 접수안내 (문의 사무처 02-2655-3131)
 - 참가신청서를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로 발송 후 참가신청서 접수
 - 이메일 koreapask@daum.net / pask@pask.net
-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영문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프로필 사진 등 필히 기재)
 - 신청 접수와 입금 확인을 비롯한 주요사항은 문자로 발송예정

4. 안내 및 유의사항

- 제공혜택
 - 부스 참여작가 초청장 겸용 엽서 제공(1부스 200매)
 - 작품집 부스 당 5권 증정
 - 참여작가 증서 수여
 - 개인전시 참여작가 중 우수 작가를 선정하여 창작지원금 지급
 - 기자재 업체 참여시 1부스 당 1페이지 광고 게재
- 그룹전 혹은 2인 이상 신청시 전시 구성에 대한 적절성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신청 순서에 따라 희망하는 위치로 부스 배정의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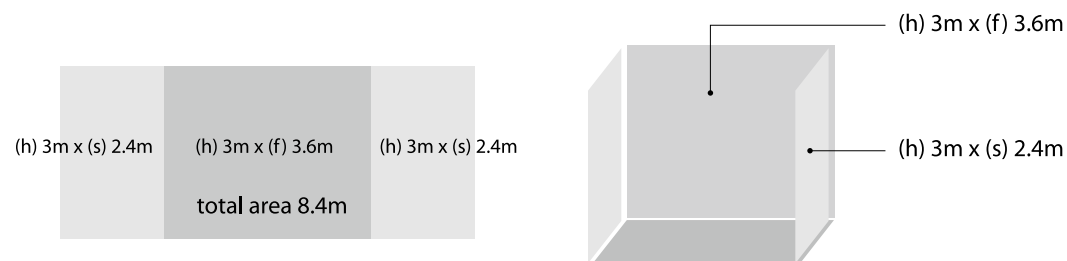
2025 PASK KOREA Photo Festa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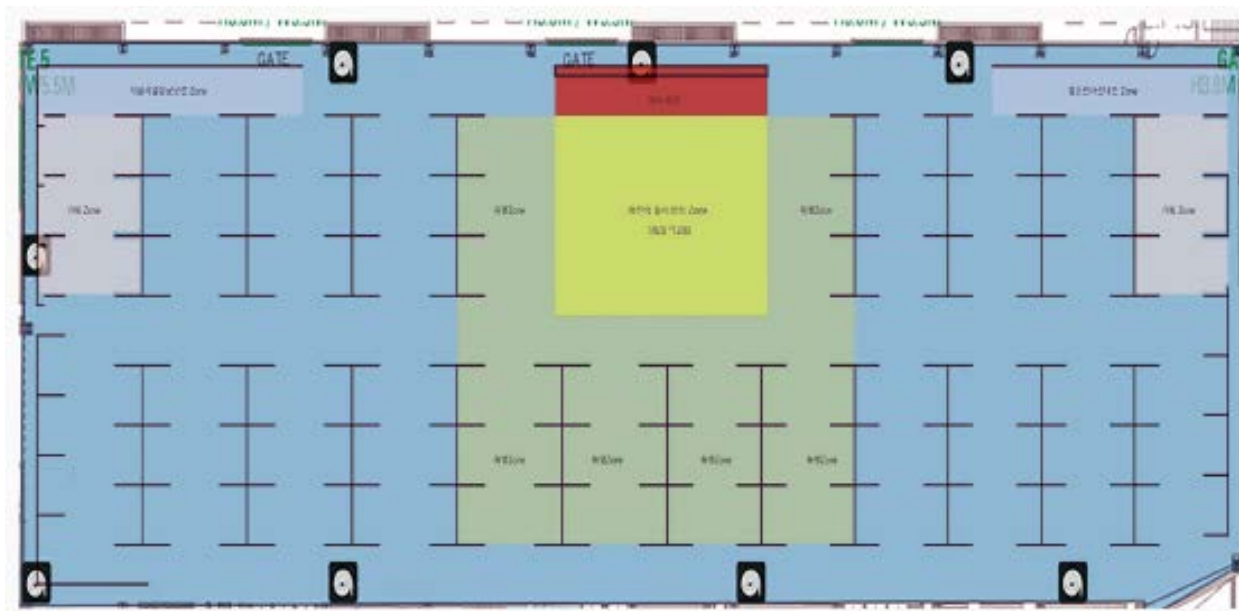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작가 모집

5. 전시부스 안내

■ 부스사이즈 2.4m(좌측날개) × 3.6m(정면) × 2.4m(우측날개) ㄷ자형 부스



■ 부스가격 센터구역(녹색) 부스당 250만원 / 일반구역(파란색) 부스당 200만원



문의 사무처 02-2655-3131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제20회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12월 5일(금)
소인유효
(입회점수-있음)

응모요령

출품자격: 전국 사진애호가(외국인 환영)

출 품 료: 1인당 2만원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군산사계절, 고군산 열도, 은파호수공원 풍경, 금강하구언, 금강철새, 새만금, 동백대교,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 군산의 전통문화 유적지,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산물 및 각종행사, 스포츠 행사 모습
- 군산의 심볼마크, 시조(갈매기), 시화(동백), 시목(은행나무)를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제외)

접 수 처: 군산시 측동1길 6-3 (수송동) 피렌체빌딩2F (사)사협군산지부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 촬영장소를 필히 명기할 것

심사 및 전시

접수기간: 2025년 12월 5일(금) 소인유효

심사일시: 추후통보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추후통보

전시기간: 2025년 12월 20일(토)~31일(수)

전시장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상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군산시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군산시의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3점: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금 각 10만원

입 선 4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부상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가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2025 한국사진작가협회 제5차 장학생 선발 공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제4조 6호 및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회원 및 직계가족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장학생 선발을 공고합니다.

You can do it !
2025. 9. 15 – 10. 31

2025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개요

- 접수기간 : 2025년 9월 15일(월) ~ 10월 31일(금) 도착분
 - 선발결과 공고 : 2025년 11월 중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예정)
 - 장학금 수여식 : 2025년 12월 5일(금) 14시 /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 선발규모 : 32명 이내 (총 3,200만원)
- 선발방법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

유 형	대 상	선발인원	지 급 액	합 계
A형	사진관련 전공 대학(원)생	15명 내외	각 1백만원	총 3천2백만원
B형	회원 직계가족	10명 내외		
C형	회원 본인	5명 내외		
D형	사진예술대학 재학생(교육전문위원장, 동문회장 장학금)	2명 내외		

■ 신청자격

- A) 정규대학 이상 과정의 사진관련 전공자 중 해당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B) 회원의 직계가족 중 정규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자 (전공무관)
 - C) 회원 본인이 정규대학 이상의 사진 전공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을 수강 중인 자
 - D) 사진예술대학 재학생 (교육전문위원장, 동문회장 장학금)
- ※지원자 공통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1) 지원자의 자격에 맞는 양식(A~D)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B형, C형 신청자는 소속 지회(지부)장의 추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3) 대학 이상 재학 중인 자는 공통적으로 평균 평점이 3.0이상(4.5점 기준)이어야 하며
기준이 4.5점이 아닌 경우 GPA 100점으로 환산한 학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함
- 4) 한 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선발 시 가산점 적용
- 5) 이전 협회 장학생 선발인원 및 등록금 전액 면제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 함
- 6)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제외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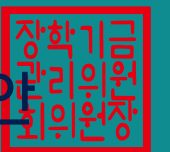
연 번	구 분	비 고
1	장학금 신청서	전형별 해당 서식 작성
2	서약서	공 통
3	주민등록 초본 1부	공 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B형 지원자
5	성적증명서	공 통
6	재학증명서	공 통
7	추천서(교수, 임원, 지회 · 지부장)	전형별 해당 추천서 첨부(필수)
8	기타 서류	기타 심의에 참고할 서류(선택)

■ 유의사항

- ※서류 일체는 접수마감 일 전까지 우체국 등기 혹은 직접 방문하여 도착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심의 후 즉시파기 함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 ※Tel : 02-2655-3131 / E-mail : pask@pask.net / Homepage : www.pask.net

2025년 9월 15일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2025 AI 이미지 콘테스트

접수기간
2025. 09. 22(월) ~ 10. 31(금)

홈페이지 접수
<http://ai.pask.net>



공·모·요·강

공모내용 AI 이미지 생성 및 사진예술 융합 작품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반부문, 청소년부문으로 접수)
출 품 수 1인당 3점 이내
출 품 료 무료
접수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접수방법 작품 출품용 홈페이지(<http://ai.pask.net>)를 통한 접수
심사발표 2025년 11월 10일(예정)
심사방법 개별채점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추후 공지
시 상 식 2025년 12월 7일(일) 예정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전시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기간)
시상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내

시·상·내·역

대 상 1점 서울특별시시장 상장 (예정)
최우수상 1점 서울특별시의회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 수 상 2점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특 선 5점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입 선 50점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서울사랑상품권)
※ 상권 및 상금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상금은 100% 자부담으로 진행, 대상은 상장만 수여하며 타상권의 상금 및 시상품은 협회장 명의로 수여함.

유·의·사·항

- 작품 규격에 명시된 긴변 기준 2천 픽셀에 미달 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작품은 AI 생성 이미지 및 사진을 활용한 작품이어야 하며, AI 톨과 사진 촬영물을 혼합한 경우 반드시 출처와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성 과정에서 불법적·비윤리적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심사 제외됩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주최 측은 전시 및 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포토샵, 합성 등 모든 후보정 작업은 가능하나 저작권 및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는 소스를 사용해야 하며 합성 작품의 경우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재사용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제출한 파일을 삭제처리 합니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2025 제 3회 한국 청소년 사진제

접수기간
2025. 10. 10(월) ~ 11. 16(일)

홈페이지 접수
<http://teen.pask.net>



제2회 한국청소년사진제 대상
© 2024, 손재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공·모·요·강

대 상 대한민국 초, 중, 고 학생 및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분류 접수)
규 격 자유작으로 긴변 기준 2천 픽셀 이상 JPG 파일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 품 료 무료
접수기간 2025년 10월 10일(월) ~ 11월 16일(일)
접수방법 작품 출품용 홈페이지(<http://teen.pask.net>)를 통한 접수
심사일정 2025년 11월 17일 ~ 11월 18일(예정)
결과발표 2025년 11월 19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전시일시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기간)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시 상 식 2025년 12월 7일(일) 예정
시상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내

시·상·내·역

대 상 1점 (초·중등부)	서울특별시교육감상장 및 상금 50만원
대 상 1점 (고등부)	상장 및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점 (초중/고 각 1점)	전라남도교육감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우 수 상 4점 (초중/고 각 2점)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특 선 8점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입 선 40점	상장 및 상금 5만원

※ 특선, 입선 상권 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출품비율에 따라 부문별 수상작 수 결정
※ 상금은 100% 자부담으로 진행, 상금 및 시상품은 협회장 명의로 수여함.

유·의·사·항

- 작품 규격에 명시된 긴변 기준 2천 픽셀에 미달 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주최 측은 전시 및 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포토샵, 합성 등 모든 후보정 작업은 가능하나 저작권 및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는 소스를 사용해야 하며 합성 작품의 경우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이미지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재사용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제출한 파일을 삭제처리 합니다.
- 수상자의 작품 전시 액자는 시상식 이후 본인에게 증정합니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호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테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근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춘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웅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돈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용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윤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테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록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옥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2025년 9월 1일 기준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10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현중 여수지부장 3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워싱턴지부 60만원
이종면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애영 중앙예총회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1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김학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최태용 자문위원 3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부지회장 1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이윤순 이사 5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박현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처장 10만원
김춘도 이사 30만원
이희수 서울지회 회원 300만원

현재 잔액 340,807,551원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붓, 펜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랍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랍
벨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썬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2024년 단풍시즌 판매율 1위 브라이트CPL

세계 최초 단풍&야경 특수 자석필터

색보정이 필요없는 자동 보정효과

49mm 부터 95mm까지 사용가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Lexar

렉사 공식수입원 (주)벤로코리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카메라 메모리 브랜드

동급대비
가장 빠른
속도

+

탁월한
안정성

+

전문적인
A/S

구입 및 대리점 문의
(주)벤로코리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빌딩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02-775-6681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cm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
cm
HIGH

최대높이
156cm

20
kg
PAYLOAD

페이로드
20kg

- 사진여행의 시작

사진을 전문으로...

2025년 촬영계획

1월

- 중국 패상 초원 촬영
- 일본 비에이 촬영

2월

- 일본 비에이 촬영
- 아이슬란드 오로라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4월

- 체코 남모라비 봄 풍경 촬영
- 일본 장노출/후지산 반영 촬영

5월

- 일본 장노출/네모필라/등나무 꽃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6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이탈리아 돌로미티 봄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7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아이슬란드 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8월(말레이시아 섀포르나 촬영)

- 스코틀랜드 장노출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9월(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스리랑카 사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10월

- 체코 남모라비 가을 풍경 촬영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11월

- 스리랑카 사진 촬영 여행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12월

- 남인도 차발 촬영(World Photo)
-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3박4일 장노출 195만원(대한항공)
- 아이슬란드 14박15일, 7월(650만원)
- 남모라비 10박11일, 대한항공(450만원)

- 숭바 5박6일 350만원(대한항공)
- 룽복 4박5일 270만원(말레이시아항공)
- 스리랑카 사진여행 330만원
- 아이슬란드 14박15일(가을)



- 말레이시아 섀포르나 250만원



PHOTOTOUR



제2회 DH 사진 공모전

풍경사진

응모 내용

- 공모주제 풍경 사진(미발표 작품)
-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X14" (장정 불필요)
- 출품요령 작품 이면에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요망
- 출품수 1인 3점 이내
- 접수일자 2025년 8월 20일~10월 20일까지(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 유효)
- 출품자격 제한 없음
- 출품료 없음
- ※ 공모에 제출한 모든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응모 방법

- 방문 접수 서울시 중구 수표로6길 2-1 대광빌딩 1층(중이에 그린, 월~금)
- 우편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95번지 예원빌딩 6층(코아스페이스)
- 온라인 접수 이메일 coospace@gmail.com
 - ※ 컬러 및 흑백 20"X24" JPEG파일 3,500픽셀 이상 디지털 파일
 - ※ JPGE 이미지 파일(촬영정보 포함 필수)



심사일시

- 2025년 11월 1일~11월 7일(예정)

심사결과발표

- 2025년 11월 8일(예정) :
주관사 코아스페이스 블로그 공지(<https://blog.naver.com/coospace2010>)
- 2025년 11월 8일~9일(예정) : 입상자 개별 통지

시상 내역

- 대상 1점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 2점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특선 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입선 32점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특선 이상 중복 수상 없음

개막식 및 시상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단,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시상 및 전시 장소

- DH아트센터 갤러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 한강파크빌딩 지하 2층)

전시 기간

- 2025년 11월 28일(금)~12월 13일(토) (단,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기타(유의) 사항

- 출품자에게는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이 있음.
-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사에서 필요한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품은 저작자와 협의하여 주최사의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본인 또는 대리인 참석)
- 심사에서 입상이 확정되어도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된 작품으로 확인 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주최 **DH** **대한회계법인**
Daehyun Accounting Corporation

후원 **도드람양돈농협**
돈우 **돈우나드리** **정육**
FARM TO TABLE FARM TO TABLE

주관 **CoA-Space** **문의** coospace@gmail.com
(사)코아스페이스

2025.08.20.WED

10.20.MON

접수기간 2025. 10. 1.~10. 30.

제6회 전국 예향강서 사진 콘테스트

<입회점수 인정>

작품주제

아름다운 풍경 및 문화예술행사 작품사진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및 예술사진

응모자격

만 18세이상 내국인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 품 료

1인당 10,000원
우리은행 1005-101-291503(강서문화원)

작품규격

흑백, 컬러 11"× 14"(장정불요)

접수방법

출품 사진 뒷면에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
- 출품표 다운로드(www.kcc2000.or.kr)

접 수 처

강서아트리움 1층(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 077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5
(TEL. 02-2692-4266)

접수기간

2025. 10. 01.(수)~10. 30.(목) (소인유효)

심사발표

2025. 11. 06.(목) 오후 15:00
강서문화원 홈페이지(www.kcc2000.or.kr)

전시기간

2025. 12. 03.(수)~12. 10.(수)

시 상 식

2025. 12. 10.(수) 오후 16:00

전시장소

강서아트리움

시상내역

금상(1점)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강서구청장상
은상(2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강서구의회의장상
동상(3점) : 상장 및 상금 70만원 | 강서문화원장상
가작(5점) : 상장 및 상금 40만원 | 강서문화원장상
장려(5점)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강서지부장상
입선 : 총 출품작의 20% 이내 강서지부장상

기타사항

- 수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선 및 입상작은 발표후 3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parkyn1@hanmail.net (미제출시 상권취소)
- 입상 및 입선작에 대한 작품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측은 수상작에 한하여(제작,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등) 홍보 및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자는 작품 출품시 개인정보를 별도의 서명 없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품함.
-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조치 되며,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자격 유보됨.
- 수상작과 관련된 초상권 및 명의도용 등 분쟁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출품자 전원에게 우편 발송함. (입상자는 상장포함 / 발송 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 문의 : (사)한국사협 강서지부 지부장 (010-2838-5757)

주최 | **강서문화원**,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서지부**

후원 |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사진축전

작품출력 및 액자제작
-회원전, 사진작품전 전시기획 대행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한사전, 사진축전, 그룹전, 개인전, LED전시, 도록제작, 전시기획 대행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ArtPlus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한국사진 광고 중]



“마음을 담는 작품”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ArtPlus
LINE UP CARD



ArtPlus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Plus PEBB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진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Plus FINEART 파인아트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Plus KOREAN PAPER 한지

한국적인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LINE UP CARD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친환경 자연주의 닥나무 닥운용 설경한지



장섬유인 닥나무 운용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 입체액자



닥운용 설경한지 캔버스 원목입체액자



설경한지 캔버스



사진축전 바로가기



한지액자 바로가기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바로가기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띄움 액자 뒷면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 사이즈 (3R, 4R, 5R, 6R, 8R, 11R)



액자보러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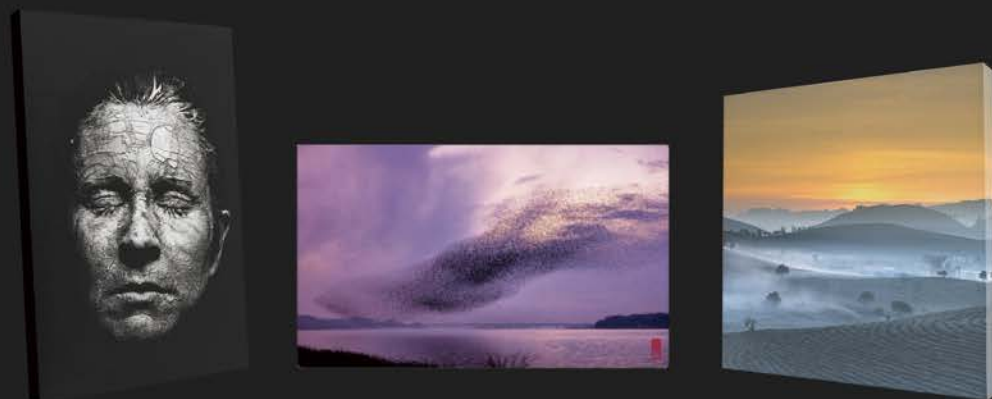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사진의 가치는 프레임에서 완성됩니다

수십 년간 사진과 함께한 아뜨레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액자만을 만듭니다



전화문의 1544-2188 (주중 09:00-18:00 | 점심 13:00-14:00)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엣지 아크릴액자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You Su Chan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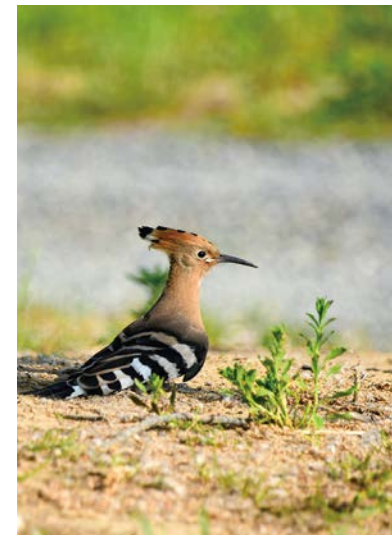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월간 한국사진 10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윤기창
· 무제1



· 홍이선
· 후투티의 산책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 응시방법!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 2. 표지 작품성 다양성을 위해 임원, 지회·지부장 추천 투고 가능
3.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선정
※단, 정확한 촬영데이터(촬영일자, 장소, 카메라 기종, 사용 렌즈, Filter Interval 외)를 공개해야 함.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k / 비밀번호 kpask 접속 후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추천투고 중 택1 폴더
선택 - 선택 폴더에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이만우 개인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기획 초대전

자작 : 침잠의 숲

이 만 우(대구)

전시일시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16일(일)

전시장소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단, 월요일 휴관, 전시관람 화~토, 10:00~18:00)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39(이천동), Tel.053-766-3570)

개 전 식 2025년 11월 1일(토) 15:00

전시작가 이만우(010-3505-2991)



©이만우_자작 2025



“숲과 물가에 곱게 누운 순백의 자작나무,
물결과 바람의 숨결이 시간을 멈추게 한 듯 고요하다.
... 나는 침잠의 숲에 화석처럼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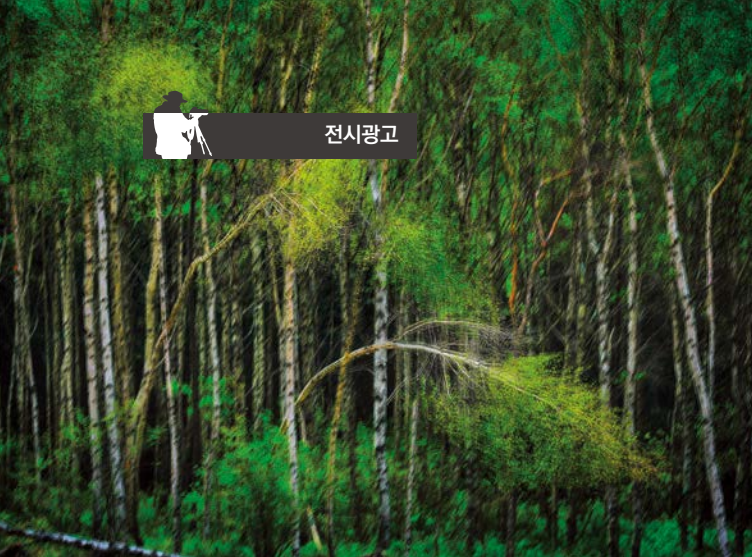
©이만우_자작 2025



©이만우_자작 2025



©이만우_자작 2025



전시광고

©이만우_자작 2025

사진가 이만우가 오토이 자작나무에 천착해온 15년의 여정을 담아 두 번째 개인전 《자작: 침잠의 숲》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약 30여 점의 신작과 더불어 영상 작업까지 함께 공개되며, 관객을 빛과 고요, 그리고 숲의 호흡이 교차하는 몽환의 공간으로 이끈다.

이만우는 2022년 첫 개인전 이후 더욱 단단해진 태도로 작업을 이어왔다. 그는 강원도, 몽골, 내몽골, 시베리아 등지에서 고독한 현장을 마주하며 자작과의 교감을 쌓았다. 혹독한 자연 앞에서 기다림을 선택하고, 빛과의 대화를 통해 완벽한 순간을 붙잡은 그의 작업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맺는 내밀한 관계의 증언이다.

사진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방식을 따르지만, 그 속에는 자연을 소유하려는 시선 대신,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겸허한 태도가 배어 있다. 쓰러진 자작 앞에서는 상실과 회한을, 곧게 서 있는 자작 앞에서는 순백의 고결함을 비춘다. 사진과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풍경의 기록을 넘어, 숲이 건네는 존재와 시간에 관한 시적 언어를 관객에게 전한다. 또한 그 속에서 작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보여준다.



©이만우_자작 2025



©이만우_자작 2025

이번 전시는 특히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에 맞추어 기획되었다. 루모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사진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대구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지역의 수준 높은 사진가를 소개하는 특별 기획전으로 이만우를 초대했다.

《자작: 침잠의 숲》은 단순히 한 작가의 개인전이 아니라, 국제 사진축제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과 세계성을 이어주는 교차점이다. 자작의 숲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성찰은 비엔날레를 찾은 이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이만우의 집요한 시선은 대구라는 지역이 지닌 사진예술의 깊이와 잠재력을 함께 증명한다.

이만우 두 번째 개인전 《자작: 침잠의 숲》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자연을 향한 겸허한 태도와 내적 고독 속에서 길어 올린 성찰을 담는다. 작가의 렌즈는 자작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 앞에서 오래 머무르며 존재와 시간, 빛과 침묵의 의미를 되묻는다.

특히 이번 전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와 함께 지역성과 국제성이 만나는 장이자, 자작나무라는 한 주제를 평생의 과업처럼 탐구하는 사진가의 집요함과 겸허함을 선명히 드러낸다. 관람객은 사진과 영상 속 자작의 형상 너머로 '자연과 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만우_자작 2025

숲속 물가에 곱게 누운 순백의 자작나무,
물결과 바람의 숨결이 시간을 멈추게 한 듯 고요하다.

빛이 떠난 자리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물가를 감싸는 옅은 안개는 너울너울 밀려와
몽환의 경계를 오간다.

나는 한때 자작나무를 닮으려 했다.
하늘을 향해 곧게 서서, 변함없는 순백을
지키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계절을
건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거센 바람에 부러지고, 혹독한
추위에 부리를 놓아버린, 쓰러진 그들에게서
오히려 나를 다시 보게 된다.

긴 세월 침묵에 잠긴 외로움은 빛과
색의 결로 얹혀 파인더 속에서 세상으로
걸어 나온다.

나는 침잠의 숲에 화석처럼 머문다.



©이만우_자작 2025



©이만우_자작 2025



전시광고

[조은자 개인전]

2025 공주 올해의 사진작가전

감각하는 시선의 색과 선

조은자(공주)

©조은자_Purple_3 EUN_4246-3-1-40x26.6



©조은자_Red_4EUN_5952-1

전시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 10월 26일(일)

전시장소  아트센터고마

주최·주관  공주문화관광재단

전시작가 조은자



©조은자_Green_1 EUN_8369-1-1



©조은자_Green_3 EUN_8377-1-1



©조은자_Purple_4 EUN_4246-4-1-40x26.6



©조은자_Purple_2 EUN_4194-2-1-1-40x26.6-디아섹

꽃 잎 하나가 탄생할 때 부드럽고 신비한 곡선과 은은한 색채는
악보에 기록된 음율이 재현되듯이 흐른다.
그 섬세한 선과 색채가 관객을 추상의 세계로 이끈다.



©조은자_Red_1 EUN_5944-1

사진예술의 본질적 성격인 '재현'은 이번 전시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추상' 사이의 역설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회 작품 꽃잎은 미시적 관점으로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는 사진의 길이 오히려 추상적 세계로 향한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감각과 사유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꽃잎을 리얼하게 기록하기 위한 반복적인 촬영으로 얻어진 추상적 이미지는 사물의 본질을 붙잡으려는 탐구의 과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사진예술의 새로운 리얼리티를 제시했다.

첫번째 개인전 〈임처럼〉에서 나뭇잎의 색과 형태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으로 자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그 지점을 넘어선다. 이번에는 색과 선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그



©조은자_White_07 EUN_9038-1-1



©조은자_White_01 EUN_6044-1-80x120



©조은자_White_02 EUN_6053-1-1-1-80x120



©조은자_White_06 EUN_9031-2-1

안에 깃든 감정의 파편과 무의식의 잔상을 꺼내어 놓는다. 꽃잎은 여기에서 단순히 식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색'과 '선'을 통해 그리움과 사랑, 애뜻함을 담아내는 은유적 장치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 어느 한 지점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처럼, 찰나적이지만 오래 머무르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진이라는 기록의 행위가 나에게는 곧 기억을 붙잡아 두는 방식이며, 셔터가 눌러는 순간은 내면의 깊은 울림이 색과 선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사진의 주된 특징으로 기록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전시에서 사진은 기록을 넘어 기억과 감성의 언어가 된다. 작가의 세계에서 색과 선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음악의 선율처럼 흐르며, 그 선율이 곡을 이루듯 색의 변화와 대비는 또 다른 조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꽃잎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섬세한 선들은 하나의 곡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이는 결국 사진예술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담는 이상의,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임을 보여준다. 더 리얼하게 재현하려 할수록 더 추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역설적 경험! 그러나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그리고 본질에 대한 감탄과 물음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결국 우리에게 묻는다.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진이 보여주는 세계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추상인가. 이번 작품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감각과 기억의 파동 속에서 각자의 내면에 머물던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꽃잎의 색과 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자, 인간 내면의 기억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진예술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인간, 기억과 감성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을 열며, 사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미정 큐레이터 -



©조로옥_꽃양귀비-함안



©조로옥_해바라기-해남

[아홉번째 조로옥 사진전]

생명의 향기 품은 계절의 숨결

플라워 가든 Flower Garden

조 로 옥(목포)

전시일시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30일(일)

전시장소 목포시립도서관 갤러리 1F

(전남 목포시 용당동 용당로160번길 32

Tel.061-278-3320)

전시작가 조로옥(010 7158 7666)



©조로옥_벚꽃-유달산

바람이 불면 대지가 숨신다.

그것이 반가운 것은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찬란한 순간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조로옥_튤립-임자도



©조로옥_버들마편초-퍼플섬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전하고자, 꽃이 피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섰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 때로는 우리나라의 최남단까지... 방방곡곡을 발품 팔며 꽃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앞에서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아주 작은 꽃송이에 마음을 빼앗겨 한참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담아낸 「플라워 가든」은 벚꽃, 유채꽃, 산수유, 맥문동, 버들마편초,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까지... 계절을 알리며 피어나는 꽃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과 매력을 저의 시선으로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봄의 생동감 넘치는 튤립과 진달래,
여름의 열정적인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의 은은한 구절초와 메밀꽃,
겨울 추위 속에서도 곳곳이 피어나는 동백과 매화까지.

사계절의 꽃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대자연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넓은 화각 속에 담긴 꽃들은 관람객에게 깊은 사색의 순간을 열어주며, 자연이 선사하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플라워 가든」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응시하는 시간이 마음속 평화와 위로를 주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로옥_구절초-정음



©조로옥_유채꽃-영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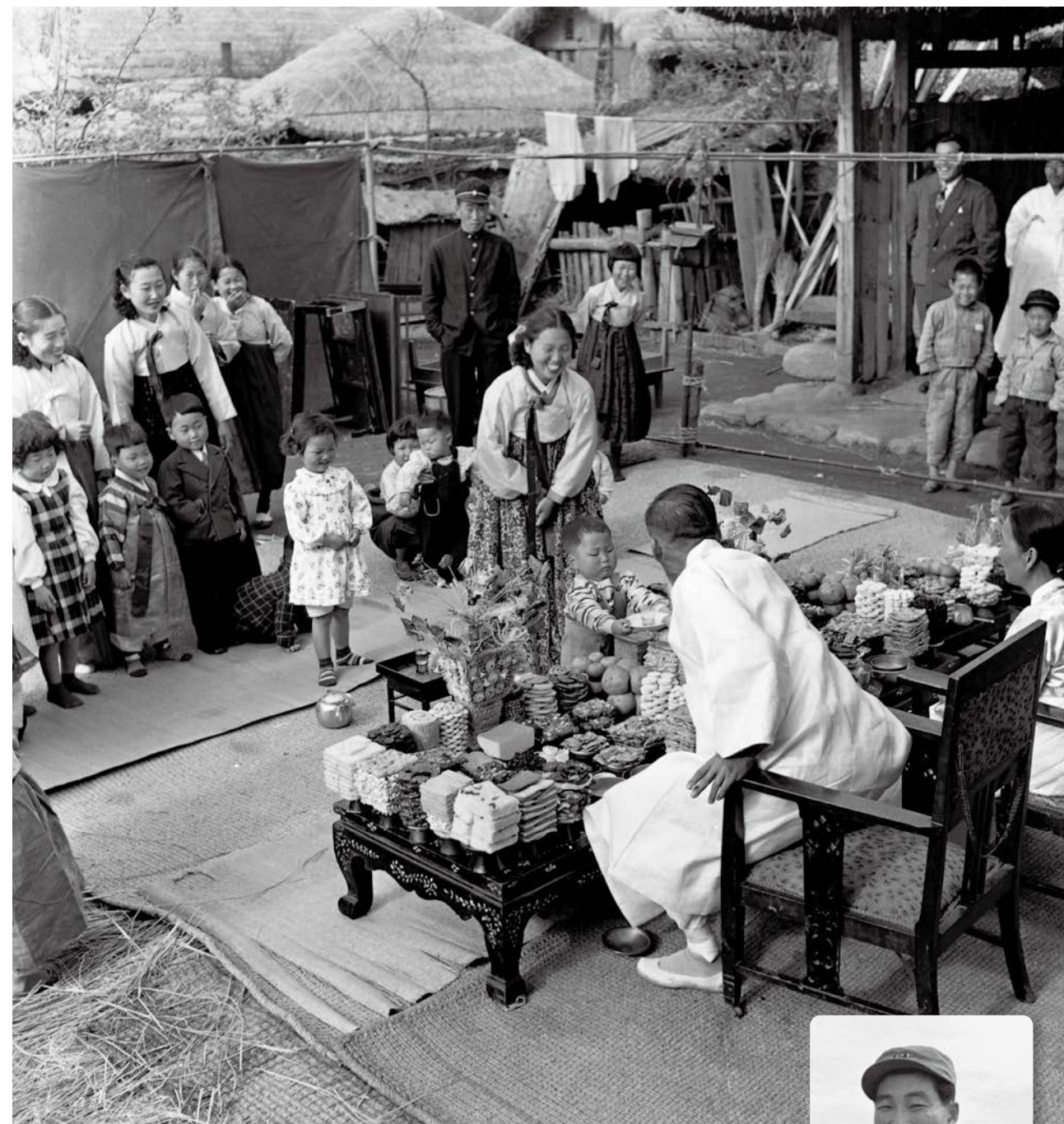
©조로옥_진달래-영취산



©이경모_전남광양 1945.8.17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 사진가 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故 이경모



©이경모_전남광양 1953.4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카메라에 담아낸 사진가 고(故) 이경모(1926~2001)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서 마련된다. 이번 특별전은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경모의 대표작과 그간 미공개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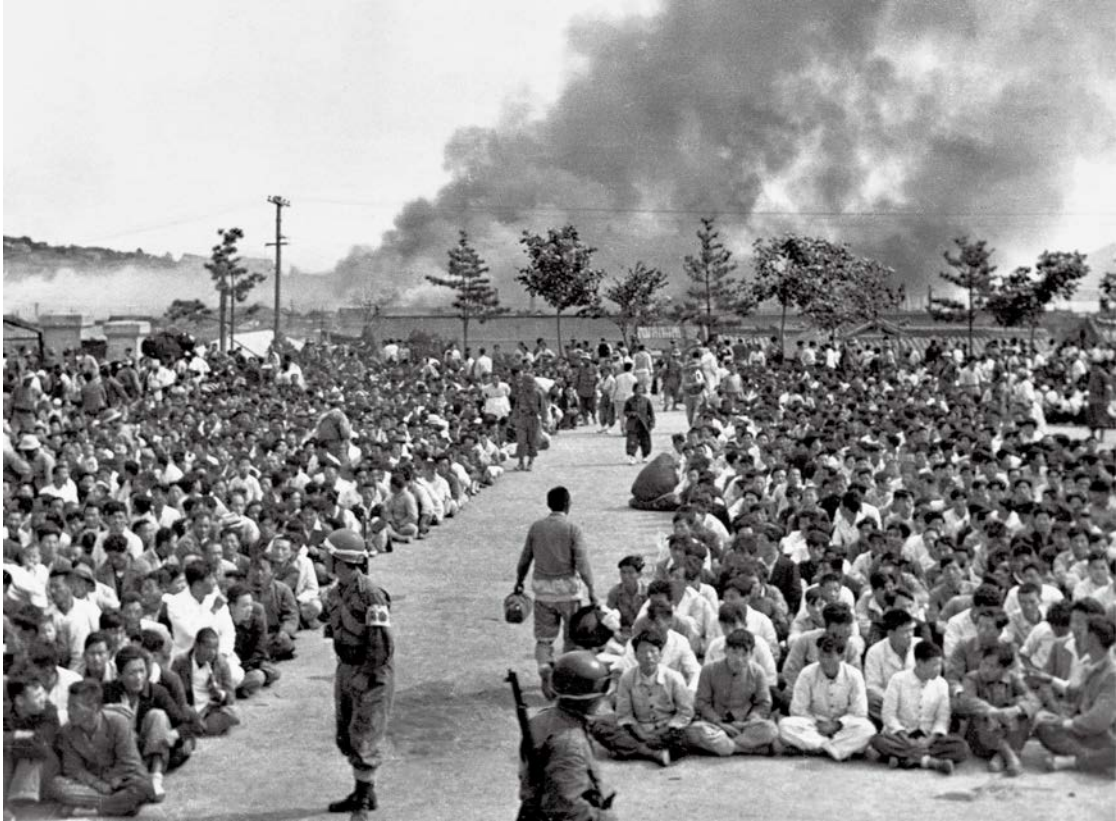
©이경모_1951.7-판문전-저자



©이경모_전남목포역앞 1945.9



©이경모_전남광주 1952.3



©이경모_전남여수 1948.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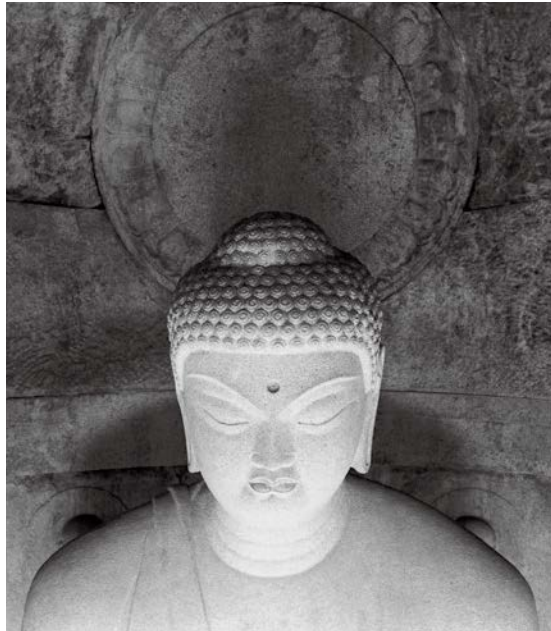
1926년 태어난 이경모는 스무 살이던 1946년, 호남신문 사진부장으로 보도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을 기록했으며 전국 각지의 풍경과 문화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여순사건 사진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평가받으며 작가로서의 책임감과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이경모는 사건의 폭력성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과 풍경을 응시했다. 보도사진가로 출발했지만, 그는 ‘사건을 찍는 기계적 기록자’가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장소의 미학을 건져 올린 예술가’였다. 이 같은

©이경모_서울화신백화점앞 1945.9



©이경모_경주석굴암 1957.3



©이경모_전남광주 1948.4

태도는 한국 사진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또한 그는 1952년 임응식, 주명덕 선생 등과 함께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한국 사진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주역이기도 하다. 이후 화관문화훈장(1992), 금호예술상(1997)을 수상하며 일생을 통해 보여준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경모_전남광양 1948.10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고(故) 이경모 선생이 남긴 찰나의 사진들이 이제는 한국 사진사의 중요한 역사로 자리 잡았음을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탄생 100주년 특별전을 맞아 국내사진계의 뿌리를 확인하고, 관객들에겐 사진을 통해 근, 현대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모_서울명동입구근처 1945.9



빛으로 남긴 한국사진예술 발자취
사광회 창립 70주년

한 경 자(대구)

사광회 70주년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1980년 창립 25주년에 첫 작품집 (회원19명 123점) 발간 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광회가 처음부터 지향하던 흑백 생활 사진이 주를 이루었으며 풍경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나, 시대적인 상황으로 90년대 들어서 차츰 풍경 사진의 비중이 차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100% 풍경 사진으로 쏠리게 되어 50여 년간 사광회가 줄곧 지향하던 리얼리즘 사진의 맥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위의 흑백 생활 사진이 칼라 풍경 사진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사
광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진계 전체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 하겠

으며 현대 사회는 삶의 가치나 철학이 다양해지고 핸드폰 보급으로 누구나 사진촬영이 생활화됨에 따라 살롱사진과 리얼리즘 사진의 장점이 서로 혼합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 개성을 살린 디지털 이미지 사진 등 기록성과 함께 예술성을 강조한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흑백 생활 사진의 진수를 확인할 수 계기를 마련하고자 **故**신현국, **故**구왕삼, **故**배상하, 강해룡, **故**김영민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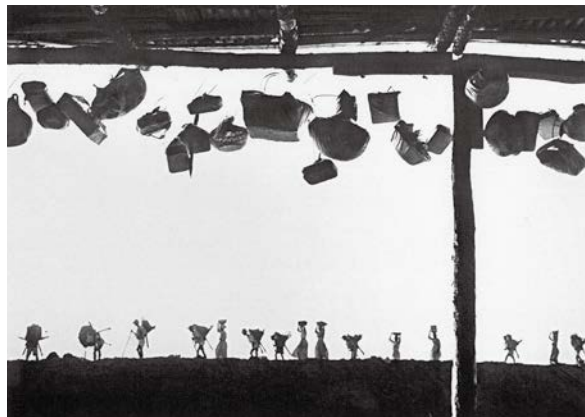
노성진 편집자 주

사광회는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 사진예술의 역사를 써온 사진 단체다.
사광회를 이끈 주요 인물들의 활동은 바로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

故)신현국(1924~1997)

故)신현국 작가는 경북 산상 출생으로 1944년 경북선 복선공사 기록사진전
으로 첫 전시회를 개최한 후 1957년~1982년까지 대구매일신문사 사진부
장 및 부국장으로 25년간 저널리즘 사진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다. 1955년
10월 10일 대구의 두 단체인 오광화와 광화연구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955년10월 10일 대구의 두
단체인 오광화와 광화연구회는 한국사단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뜻을 모아 대구 사광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제1회 대구매일어린이사진전 <앗! 터졌다> 대상(1955), 제1회 신인에
술상 <아빠 바이 바이> 특상(1962년),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동심> 특



©신현국-생존(1964년작)



©신현국-앗 터졌다(1955년작)



©신현국-동심(1963년작)

선(1963년)을 수상하였다. 신한국 자문위원은 오랜 시간 국전 사진 부문 첫 공모전 최고상인 문화부장관상(생존)(1964년) 각종 공모전 첫 회에서만 4개의 최고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진계가 염원해 온 과제가 실현된 본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관전)에 사진부문이 처음으로 참여가 시작되었다. 신한국 자문위원은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사진 부문 1회)에 <생존> 작품이 영예의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생존>은 도시락을 걸어놓은 건물과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생육을 나타내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리얼리티가 뭉신 풍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새마을 정신과도 일치되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외공모전 일본 아시아국제살롱에 여러번 입상하고 프랑스 보르도, 프랑스 낭뜨공모전, 호주 멜버른 공모전 등 여러 국제사진전에도 수상을 했다.

故)구왕삼(1909~1977)

故)구왕삼 작가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1940년 이후 대구에 정착하면 서부터 사진 작업을 시작한 구왕삼 작가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가장 많은 발표를 하였다. 본 협회 故)임응식 고문, 故)이명동 자문위원과 함께 사진 평론의 풍토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리얼리즘 사진 운동을 펼치면서 리얼리즘 사진의 신념과 사진 철학으로 강하게 사진이 예술로 가야할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광회 초대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1960년 최고의 리얼리즘 사진가이자 사진 평론가로 상당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었고 대구일간지 매일신문, 대구일보, 경남일보에 대구 사실주의 사진을 추구하는 사광회의 핵심 멤버로 구왕삼을 중심으로. 김진옥. 배상하. 박영달. 홍사영. 신현국의 지지를 받았고 조형주의와 실험 사진을 하는 사우회의 안월산을 중심으로 최계복. 김태한. 김재수. 강영호 작가들과 양측 간에 치열한 대립과 논쟁을 통해 발전하였다.



©구왕삼-군동(1945년작)



©배상하-소리없는 교실(1963년작)



©배상하-수녀 수전나(1962년작)

故)배상하(1922~1965)

故)배상하 작가는 경북 왜관 출신으로 대구에서 성장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대구공군사령부에 강제 징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는 광복후 흑백 사진현상소 <삼영사>에서 현상 및 인화 대행 사진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였다. 6.25 전쟁 때 종군하였고 1955년 대구 사광회 창립회원, 사광회 회장, 매일신문사 사진부장, 한국사협 이사 역임, 일본 아사히국 제전 3년 연속 입상, 저널리스트로 격동의 시기를 올바르게 기록하여 대구 신문사진의 시대를 열었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내었다.



©강해룡-아니올시다(1961년작)



©강해룡-항변(1962년작)

강해룡(1932~)

강해룡 자문위원은 황해도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 판사 시절 “그때 그 시절의 사진” 법정 점경을 촬영한 장면으로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작품이다, 강해룡 자문위원은 사광회 회원이며 한국사협 이사 자문위원이고 고문변호사 동아일보 사진동우회 회장 역임,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법률신문사 편집인이다.



©김영민-절규(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대전 최고상)



©김영민-생의 찬미 표지(1970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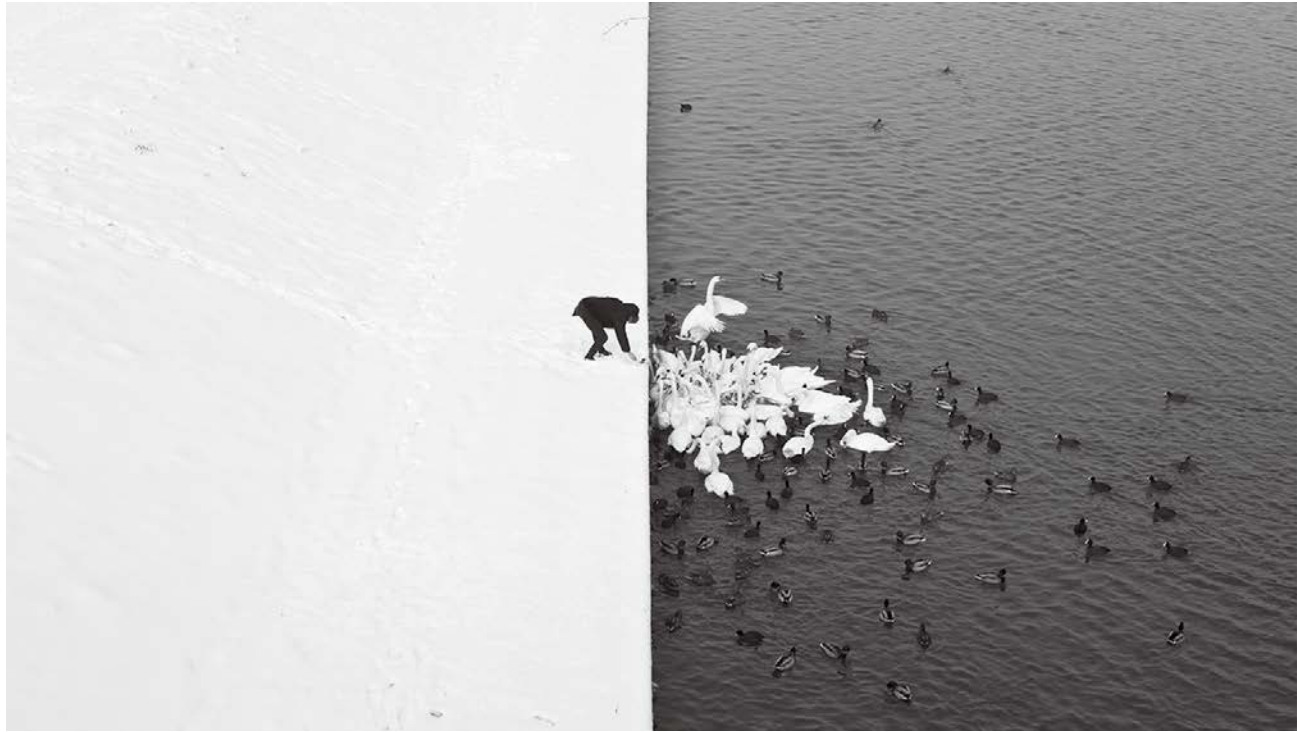


©김영민-평화의 기도(1971년작)

故)김영민(1913~1992)

故)김영민 작가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3.5.13.14대 대구지회장 역임, 10대 한국예총 경북지회장, 국전 3회 건축사진대전에 작품 “절규” 최고상(국무총리상) 수상, 국전 15회 “절경”, 23회 “함성”, 28회 “성일” 특선 수상하였다. 개인전 3회 1966년, 1972년, 1974년 국전.대구시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성심이비인후과의원 의학박사,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주제로한 “생의 찬미” 작품집 발간(1974년) 이명동선생은 김영민씨를 김박사라고 불렀다. 굳이 김박사라고 부르는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의학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의술못지 않게 사

진숨씨가 박사감이기 때문에 자연 검사검사 이렇게 부르게된 것이다. 김박사는 의술로 생명을 직접 구출하고 한편으로는 그 생명력을 예술로 미화하는 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으니 말이다. 뿐만아니라 김박사는 독실한 카톨릭교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졌고 이 사상과 철학은 언제나 그의 예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Marcin Ryczek_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인간과 자연 해석한 폴란드 작가 마르친 리체크 Marcin Ryczek



©Marcin Ryczek_Secret window



©Marcin Ryczek_Catching a feather



©Marcin Ryczek_Humanity_Digitality - Sunset in Santorini



©Marcin Ryczek_The United States of India

마르친 리체크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이고 상징적인 사진 시리즈이다. 이들의 주요 아이디어는 최소한의 형식과 최대의 콘텐츠이다. 주제는 다차원적이며 자유, 영성, 인간과 자연, 도시-자연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픽으로 변형되지 않고 주변 세계에서 발견되는 선명한 이미지는 직선과 순수한 형태를 의미한다. 마르친 리체크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각과 기다림이라는 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각은 평범한 장소에서 특별하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는 강렬한 현실 관찰이다. 반면 기다림은 선택한 장소의 독특한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순간, 작가의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날 순간을 찾고 있다. 사진은 은유적이고 모호하며 보편적인 성격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는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찰하고 해석하도록 장려한다. 팬데믹의 여파로 얼룩진 오늘날의 불안정한 세상에서 인권 위기, 전쟁, 기후 변화를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폴란드 출신의 사진작가 마르친 리체크. 마르친 리체크의 작품은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중국, 루마니아, 인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폴란드, 체코,



©Marcin Ryzek_Out of the he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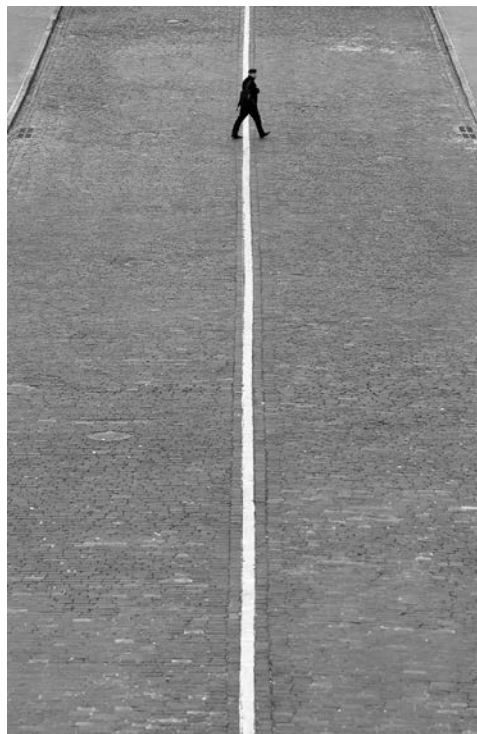
대만, 프랑스 및 한국에서 열리는 많은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이 작품들은 "가디언", "텔레그래프", "더 슈피겔", "에디오스 아로노스", "라 레푸블리카", "폴리켄", "아테네 보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세계 최대 잡지, 신문 및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눈 속의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는 파리 국립도서관의 저명한 컬렉션과 카토비체의 실레시아 박물관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마르친 리체크는 프라이데릭 쇼팽 연구소, 주한 폴란드 대사관, 청두 총영사관, 코펜하겐 주재 폴란드 대사관, 타이베이 폴란드 사무소, 비엔나 폴란드 연구소 등 폴란드 및 기타 많은 외국 기관과 협력하여 전시회를 조직하고 있다.

2013년 미국의 영향력 있는 포털 "허핑턴 포스트"는 이 작품을 세계 최고의 사진 5선 중 하나로 인정했다. 2017년에는 데이비드 김슨의 저서 "100개의 위대한 거리 사진" 표지에 실렸으며, 이는 특별한 인기를 확인시켜준다.

이번 마르친 리체크(폴란드) 전시는 제9회 평택국제사진축전 특별초대작가전으로 2025년 10월 17일(금) ~ 11월 4일(화) 평택호예술관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 제9회 평택국제사진축전은 다양한 사진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오니 협회 회원들과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Marcin Ryzek_Cross the line



©Marcin Ryzek_Border (road to Maidan Nezalezhnosti, Kiev – Ukraine)



©Marcin Ryzek_Connection

수평선과 수직선, 색채의 대비, 선과 색에 변화를 주면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마르친 리체크, 그의 작품은 평온하지만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예측되므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생동감을 던져온다.



©Marcin Ryzek_Liberation



©Marcin Ryzek_Forest



©고광중_피츠로이 호수 정상반영

달빛 능선 너머 오로라 춤추는 얼음 땅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고 광 중(광주)



©고광중_파타고니아 피츠로이



©고광중_파타고니아 피츠로이



©고광중_파타고니아 피츠로이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이 빙하의 땅에서는 사람보다 자연이 주인공이다.
밤 하늘을 물들이는 오로라의 공연도 인간의 손때가 타지 않는 자연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확인해준다.



©고광중_여명 연못-오로라

파타고니아,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빛처럼
 한 편의 시로 다가옵니다.

눈앞의 풍경 너머,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는 빛.
 귀에 닿지 않는 자연의 속삭임에 이끌려
 우리는 조용히 그 길을 걷습니다.

세상의 끝자락, 바람의 대륙.
 그 중심에 피츠로이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 위로
 구름은 머물다 흘러가고,
 달빛은 산의 능선을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밤이면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오로라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고광중_피츠로이 은하수

하늘의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핑크빛으로 물든 빙하는
 여명의 첫 빛을 품은 채
 느리게, 그러나 깊게 깨어납니다.

이 사진전은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자연이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사진은 묻습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움 앞에서 얼마나 작은가,
 또 얼마나 찬란한가.

자연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스스로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 안에서,
 비로소 이 풍경은 하나의 기억으로 머물습니다.



©고광중_파타고니아 피츠로이



©고광중_파타고니아 피츠로이

시대의 숨결 담아낸 삶의 기록

2025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윤응자_폐사지



©김영미_버스정류장



©연도흙

글, 사진제공_정재문(경기도지회장, 본부 이사)



©김경희_궁구당



©엄태수_안성유기



©최경순_雪花

이번 2025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진예술의 뿌리를 내리고 현장을 지켜온 향토 사진작가 여러분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고자 마련된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진은 단순히 눈앞의 장면을 담는 매체가 아닙니다. 사진은 시대의 숨결을 품고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사라져가는 풍경 속에서도 인간의 정서를 길어올리는 예술적 언어입니다.

이번 초대전에 참여하신 작가 여러분은 각자의 터전에서 지역의 삶을 오롯이 마주하며 그 안에 깃든 감동과 메시지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담아내었으며 그 작품 하나하나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작가로서의 자부심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회는 그동안 지역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전시 기회를 마련해 왔으며 이번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또한 그 노력의 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내면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진 작품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통 정자 - 김경희(용인)



©김경희_용담정

나는 2015년 어느날 너무나 편안한 우리의 꽃 전통 정자를 보게 되었고, 나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그 후로 “전통 정자”를 전국으로 찾아 다니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민을 했다. 어떻게 현, 근대사의 정자라는 오브젝트를 다시 새로이 재현을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회화적인 느낌의 표현으로 작업을 해보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 작업은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와 기억, 멈춤과 흐름’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정자 사진들이 보는 이들에게 작은 휴식과 사유의 시간을 건네길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화면을 바라볼 때, 계절과 공간이 중첩된 시간의 흐름을 함께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버스정류장, 기다림과 머무름 - 김영미(안산)

저는 지난 7년 동안 카메라와 함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작은 무대인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단순한 교통의 거점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의 통로이자 사회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단순한 기능적 공간을 넘어, 하루의 시작과 끝, 출발과 도착, 만남과 이별,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중략>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풍경이자 지역사회의 초상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러한 다양성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공공 공간에서의 인간적인 장면들이 예술로서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름다움과 의미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김영미_버스정류장

안성유기의 부리를 찾아서 - 엄태수(안성)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것이 딱 들어맞는다는 의미를 넘어, 오래도록 이어져 온 지역의 기술과 장인 정신이 빚어낸 결과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3년 조선의 속담집 《조선이언》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불길 속에서 녹은 눈썹, 주형에 부어지는 쇳물, 정교한 망치질, 반복되는 연마 작업.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건 단순한 소리나 움직임이 아닌, 수백 년을 버텨온 한 지역의 역사와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전통을 지켜온 이들의 손끝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안성맞춤’의 진짜 의미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엄태수_안성유기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삶의 흔적 - 연도흙(화성)



©연도흙

사진 속 벽면의 낡고 부서진 모습, 그 사이로 자라난 풀과 이끼,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는 모두 ‘잊혀져 가는 시간’의 증거입니다. 이 흔적들은 단순한 kfrdma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기록입니다. 나는 관객들이 이 사진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간’을 느끼고, 우리 삶의 깊은 층위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이 작품은 나 자신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시간의 증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로서, 그리고 나만의 시선과 감정을 담은 기록으로서 이 골목길은 나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만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폐사지를 걷다 - 윤응자(평택)

저는 폐사지를 걸을 때마다, 그곳을 채웠던 소리와 온기를 상상합니다. 법당 안을 가득 채웠을 목탁 소리, 스님의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風聲)의 울림, 그리고 참배객이 절을 하며 속삭였을 기도까지... 그런 장면들은 현실 속에서는 사라졌으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진은 그 모든 것을 눈앞에 재현할 수 없지만 그 부재가 만들어내는 여백과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중략〉

이 길고 느린 여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폐사지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허무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과 흔적, 그리고 그곳에 남아 이야기를 전하는 돌과 바람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장의 사진 속에 오래된 시간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라진 것과 남겨진 것 사이를 잇는 다리로 전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윤응자_폐사지

몽골의 호수 위에 피어난 雪花 - 최경순(하남)



©최경순_雪花

내몽골의 겨울 왕국!!

하얀 설원 위의 나무들에 곱게 내려앉은 탐스런 눈송이들이 마치 수채화처럼 평온함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허벅지까지 쌓인 폭신한 눈 위에 드러누워 올려다본 하늘은 평온하기만 하였습니다. 〈중략〉

그중 특히 이쁜 녀석들을 골라 조심스럽게 선보이며 보는이들로 하여금 저와 같은 설레임을 느껴볼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본 전율과 설레임으로 행복해하며 또 다른 설레임을 찾아 카메라 둘러메고 씩씩하게 길을 나서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꾸밈없는 격물치지, 사물의 본질을 본다
Eric Poitovin (에릭 푸이토뱅. 프랑스)



©아사노 타케시 - KYOTOGRAPHIE 2025-전시장 모습

Eric Poitovin
에릭 푸이토뱅. 프랑스

Presented by Van Cleef & Arpels
Senographer: Keimu Konishi
료조인



©Eric Poitovin_Sans titre_2019



©Eric Poitovin-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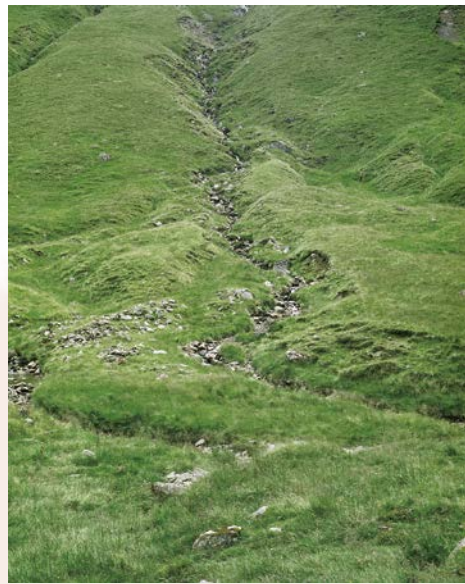
사진작가 에릭 푸이토뱅(Eric Poitovin)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 북동부 뫼즈(Meuse) 주에서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개척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양 고전 회화의 전형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시간성으로 세심하게 구성된 사진을 계속 제작해 왔다. 야외에서 찍은 풍경, 특히 숲의 사진은 지평선을 최대한 없애고 무성한 초목이 캔버스 전체를 완전히 덮습니다. 과도한 연출과 조명 효과를 벗겨내고, 식물의 형태와 성장 과정을 완벽하게 구성된 스크린에 그대로 표현해 보는 사람이 숲의 인도를 받는 듯 시간과 공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작업실의 흰색 배경을 기조로 한 초상화와 정물화는 여백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사체는 추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화면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똑바로 서 있는 죽어가는 식물 가지의 정물화, 장난감과 과일과 함께 두개골을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바니타스는 유기물이 생명력을 잃고 무기물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모호한 영역을 담아낸다.

Poitovin의 작품, 특히 스튜디오에서 찍은 작품은 피사체를 조각적으로 포착하지만 항상 사진의 평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근 관점이 거의 없이 측면이나 바로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로 무지향성 조명을 사용하여 과도한 음영을 피함으로써 피사체의 우월성을 구분하지 않고 각 대상의 형태와 존재를 그대로 표현한다.

전시 제목의 선(禪)인 '두 망각자'는 세상을 나누는 사물의 이중성을 잊고 양측의 갈등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이토뱅의 '두 개의 잊어버리기'는 반대편에 있는 요소를 잊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구성된 배열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립하고, 현실의 대결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글_오사와 케이(도쿄대학 특정연구위원)



©Eric Poitevin_Sans titre (Paysage d'Ecosse)_150x120cm_2016



©Eric Poitevin_Sans titre(Paysage d'Ecosse)02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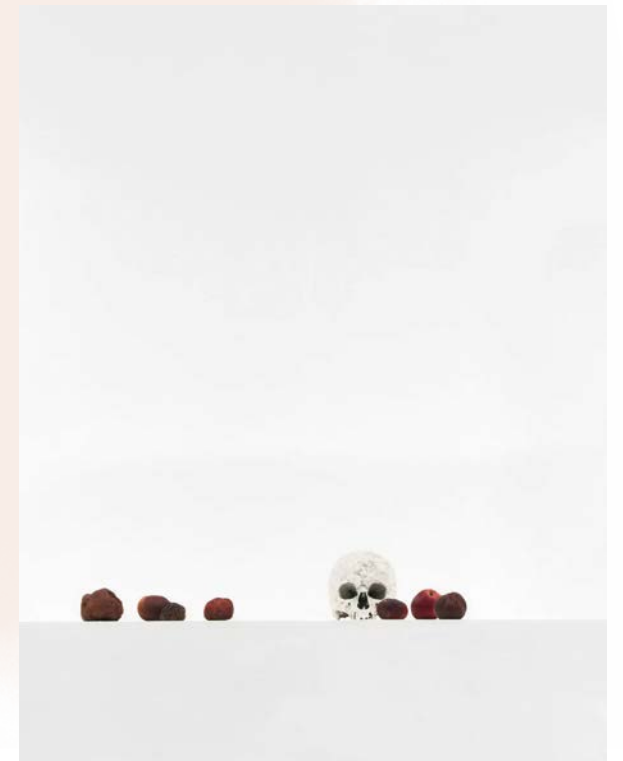
©Eric Poitevin_Sans titre (Paysage d'Ecosse)_2016



©Eric Poitevin_Sans titre_C print_2010



©Eric Poitevin_Sans titre_C print_2010



©Eric Poitevin-03

Eric Poitevin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얼굴(1985), 죽은 사슴(1995), 두개골과 나비(1994), 덤불(1995), 말 뒷다리(1999-2000), 인체 파편(2001) 등 에릭 포이테빈의 사진은 진보적인 의사 결정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사진의 피사체가 원하는 대로 구성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다음 그는 꼼꼼하게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빛은 종종 실제 작업의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검은색 배경에 제시된 일련의 두개골이나 동물의 경우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격리하고 막는 방법. 그가 나무를 선택하고, 만들고, 조립하는 프레임과 카메라 밖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삽(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나 탈출도 허용하지 않는 프레임은 그에게 아마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Poitovin의 작품은 Pascale과 Piero Sparta(프랑스 샬니), Le Plateau(프랑스 파리), Villa Medici(이탈리아 로마), MAMCO(스위스 제네바) 등 전 세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Eric Poitevin_Untitled_144x114cm_2017



©Eric Poitevin_Untitled_134x108cm_2016



©Eric Poitevin_Untitled_160 x 127cm_2017



©Eric Poitevin-02

"프레임은 사진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법이며 설정, 보호, 경계, 무대입니다." 따라서 빛, 형식, 종이 및 프레임은 표현된 각 주제의 밀도와 취약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에릭 포이테빈은 곧 사라질 시간과 경험의 부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존재나 장소를 사진에 담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모든 것이 긴장감에 빠져 있으며 확실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명확한 시간성의 부재, 즉 성찰에 대한 초대입니다.

현상 및 출력

- ▶ 월포현상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9-9 예림빌딩 2F Tel. 02)2273-5301~2 Fax. 02)2275-5301
- ▶ 포토랜드 -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4(필동1가,중앙빌딩2층) Tel. 02)2273-9321 Fax. 02)2273-9339
- ▶ 포토랩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7번길 31-2 Tel. 031)312-0971 Fax. 031)312-0973
- ▶ 도솔 스튜디오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Tel. 041)546-5550
- ▶ 삼오사진 - 광주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금남로3가 1-5) Tel. 010-3622-4249
- ▶ 동양포토샵 현상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7-1 Tel. 042)626-2500
- ▶ 대한포토 현상소 - 대구시 중구 태평로 273 Tel. 053)423-9003
- ▶ 김포토샵 - 대전시 대흥로24번길 10 Tel. 042)221-9853
- ▶ 로알칼라 현상소 - 대전시 동구 정동 14-17 Tel. 042)255-4122 Fax. 042)221-4122

기자재

- ▶ 브이티지애포 -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130번지 Tel. 02)3444-3800 Fax. 02)3444-3830
- ▶ 포토클램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6번길 21 Tel. 031)488-9111 Fax. 031)488-9119
- ▶ 신지스튜디오클램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20 삼송빌딩 Tel. 02)790-1310 Fax. 02)792-1310
- ▶ 벤로코리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1 흥국생명 1호별관 1층 Tel. 02)775-6621 Fax. 02)773-9724
- ▶ 썬포토 - 서울시 중구 소공로 3길 47 Tel. 02)319-0303 Fax. 02)776-5939
- ▶ 코리아 포토프로덕트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F Tel. 02)3436-6775 Fax. 02)3436-6776
- ▶ 무한미디어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el. 02)518-7808 Fax. 02)6455-5808
- ▶ 강산컴퍼니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길 25 청림빌딩 103호 Tel. 02)771-9891 Fax. 02)2265-0714
- ▶ 줌인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1(광복동 36-2) Tel. 051)255-0300 Fax. 051)256-2211

액자

- ▶ 아트룩스 총판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03호 Tel. 02)2653-9007 Fax. 02)2654-9007
- ▶ 두진아트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신천동 496번지) Tel. 031)314-1085
- ▶ 아프래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대천동) Tel. 1544-2188
- ▶ 동일액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1-8 Tel. 063)282-6444 Fax. 063)231-6443
- ▶ 갤러리 예담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33번길 40 Tel. 1588-4286 Fax. 051)311-7791
- ▶ 공간액자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44-2 Tel. 042)222-2245
- ▶ 포토천지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929 Tel. 063)712-5509
- ▶ 삼원종합액자 - 대구시 남구 대봉로19길 28-2 Tel. 053)476-8959
- ▶ 한양액자 - 대구시 중구 태평로 51길 5-9 Tel. 053-428-1216
- ▶ 스마트액자 - 대구시 중구 종로 69(대안동) Tel. 053-426-8806
- ▶ 동진액자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77번길 6 Tel. 031-311-6575~6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광고게재 요청시 본 협회 및 전국지회, 지부 행사참여가 가능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광고문의 : 02-2655-3132

역사를 기록하고 현실을 증언하라 AI 시대에 사진이 사는 법

글, 사진제공_배택수(본부 상임이사)

AI시대 사진이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진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사진의 본질과 사진이 나아갈 미래는 어떤 것인지 그 방향을 진단해본다.

21세기 인공지능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미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사진가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 좋은 사진을 촬영해서 포토샵 등 디지털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수정, 보정, 합성하는 등 다듬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그런데 지금은 AI인공지능이 몇 줄의 텍스트만으로도 더 현실 같고, 더 사실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대에 사진가들은 과연 “AI 시대에 사진이 살아남을 것인가?”, “앞으로 사진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AI 이미지가 사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한다.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 변화와 예술 장르의 존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사진예술과 문화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물음이기애 사진의 본질과 미래적 역할 재조명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기술해 보겠다.

1-1 사진(Photo)의 정의

사진의 핵심(정체성)은 “빛(light)”이 피사체를 거쳐 “렌즈와 감광재(필름/센서)”에 기록된 영상이다. 그래서 사진은 반드시 렌즈, 감광재(필름/센서), 노출이라는 광학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사진”이라 부를 수 있다. 핵심은 현실의 “실재의 피사체”와 “빛의 흔적이 광학적으로 기록”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사진은 “현실의 흔적(index), 존재의 자국(Trace)”을 담고 있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

옥스퍼드 사전과 웹스터 사전은 사진의 정체성을 “광학과 화학을 통해서 현실의 상을 영구한 상으로 전사시키고 고정시키는 기계 장치의 영

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진 발명을 다룬 오래된 문헌에서도 사진의 정의를 “기계적 이미지 전사장치에 의해서 현실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오는 자동성과 자연성의 묘사체계”와 한국어 사전에서도 “광학적 방법으로 감광 재료면에 박아 낸 물체의 영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2 AI 이미지의 생성 방식

이미지 생성 AI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AI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확산모델, GAN형식, 자회귀 · 마스크드 모델, 정규화흐름모델, 에너지기반모델, NeRF 3D생성모델등 있지만, AI이미지는 카메라를 거치지 않고, 현실의 피사체가 개입하지 않은 “텍스트 · 데이터 기반 확률 계산” ⇒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AI 이미지 생성은 대규모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 (기존 이미지, 텍스트 설명)를 학습한 딥러닝(신경망)이, 사용자의 텍스트 지시(프롬프트)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이즈(잡음)를 제거, 정제하면서 패턴을 합성해 새롭고, 구체적인 이미지(그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방식의 대중적 방식인 확산모델이다.

이렇게 만든 AI 이미지는 현실의 피사체가 직접 광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현실의 흔적인 “지표(index)와 자국(Trace)”이 아니다.

즉, 현실의 “흔적”이 아니라 “알고리즘적 창조”라는 점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새로운 조합이다.

현실의 피사체를 광학적으로 기록한 사진과 달리, AI 이미지는 데이터 패턴 기반의 합성한 산물로, 사실성(Factuality)과 진정성(Authenticity) 문제가 발생하고, 사진예술과 구분되는 지점이 된다.



‘AI이미지생성모델’에 ‘사실적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명령어로 만든 다음, 부족한 부분은 세부적 강화포인트를 추가하며 만든 AI이미지(저자 생성)

1-3 논쟁 지점

AI 이미지는 피사체와 빛을 통한 기록성이 없으므로 “사진(Photo)”이 아니고, 회화, CG, 디지털 아트와 한 장르로 분류해야 한다.

이미 디지털 시대에 “픽셀 조작”은 흔한 일이며, 과거 포토몽타주나 합성사진처럼, 사진예술의 한 변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영역에서 포토몽타주, 합성사진, 디지털 아트 같이 AI이미지도 사진의 확장된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원재료는 현실을 촬영한 사진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AI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현대사진이 영화같이 각본에 따라 의도적 · 인위적으로 구성 · 연출한 후 사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제와 복제를 거듭하고, 사진과 회화, 설치와 행위예술 등 타 매체와 혼합해서 재구성한 Making Photo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사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진 장르가 예술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AI는 아예 피사체 - 광학 - 기록

의 사슬이 끊어져 있으므로, 사진예술의 확장이라 해도 “사진”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현업에서의 입장도 많은 국제 사진단체의 공모전 (FIAP, PSA 등)은 AI 생성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 카테고리(디지털 아트)”로 구분한다.

그리고 예술적 맥락에서 “사진적 이미지(photo-like image), 사진 같은 이미지”로 다루며, 사진예술의 확장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AI 생성 이미지는 아무리 예술적 의미가 확장되더라도 광학적 개입 없는 합성물이므로 결론적으로 “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인 “AI 아트 이미지”, “사진같은 합성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이 개념적으로 맞다.

즉, 외형은 사진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진의 물리적 · 묘사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1-4 사진(photo) vs AI 이미지(AI-generated Image) 비교표

구분	사진 (Photo)	AI 이미지(AI-generated Image)
생성 원리	현실의 빛이 감광재료(필름, 센서)에 직접 기록된 결과물 (광학적 기록)	딥러닝 모델이 데이터셋(이미지+텍스트)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합성
형성 방식	카메라 + 렌즈 + 빛 + 피사체	컴퓨터 그래픽, 그림, 3D 렌더링, AI 이미지 등
물리적 특성	빛이 남긴 흔적 → 객관적 기록성	빛의 흔적 아님 → 재현적 유사성만 존재
묘사적 특성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 (사건 · 사물 기록 가능)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상과 무관함
현실과증거	실제 순간과 장소를 증명 (지표성, Indexicality)	실재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음 → 증거성 없음
진정성	‘그때, 거기 있었음’을 보장	현실과 무관 → 진정성 논란 발생
주제표현 방식	현실의 대상, 장면을 촬영 → 있는 그대로 혹은 연출된 장면	사용자의 프롬프트(지시문)에 따라 새로운 조합 창조
창작지역할	촬영, 구도, 빛 조절, 순간 포착 → 관찰자이자 기록자	프롬프트 입력, 스타일 지정, 수정 → 지시자이자 설계자
한계와 문제	피사체 · 장소 · 시간에 제약 / 기록은 조작이 어려움	사실과 허구의 경계 불분명 / 조작 · 가짜 뉴스 악용 우려
정신적 특성	보는 사람에게 실제 경험 · 기억 · 증거를 환기	‘진짜 같은 가짜’로 인한 시각적 혼란, 상상 자극
예술적 가능성	사실성+감성, 기록성과 미학을 동시에 추구	무한한 상상력, 현실에 없는 장면도 구현 가능

2-1 기술적 전환

오늘날 텍스트 몇 줄만으로 사실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이미지들은 때로는 현실보다 더 그럴듯하고, 사진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특히 광고, 패션, 제품등 광고업계에서는 이미 제품 촬영 대신 모델 촬영, 스튜디오 대관, 조명 세팅 등 모두 pass해서 클릭 몇 번으로 AI로 만든 이미지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업사진 영역에서는 비용 · 속도 ·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사라질까?” 라

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할 수 있다.

사진은 현실의 피사체 앞에서 빛이 센서나 필름에 직접 흔적을 남기는 “광학적 흔적(지표 index)”이기 때문에 생성 이미지인 AI 이미지가 흉내 낼 수 없는 사진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현실의 빛이 남긴 흔적이다.

피사체 앞에서 순간적으로 반사된 빛이 필름이나 센서 위에 직접 닿아 기록된다는 점에서, 사진은 다른 어떤 매체와도 다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AI는 흉내내서 만들어 낼 수는 있어도, 실제 그 순간, 거기 있었던 흔적까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사진만의 고유성이다.

2-2 예술 · 철학적 차원

예술의 세계에서도 사진은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사진이 우리 마음을 폭 찌르는 어떤 감각, 예기치 않은 울림 즉 푼크툼(Punctum)의 개념을 설명했다.

사진은 바로 “그때 - 거기 있었음”의 실재적 존재를 증명하는 이미지이며, 사진만의 힘이다.

사진이 지닌 이 “지표성(indexicality)”, 즉 실제 세계와의 물리적 연결은 AI 이미지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차별성이다.

그것은 AI 이미지가 아무리 정교해도 “먼지 날리는 골목길,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의 시선,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기묘한 각도로 드리운 순간, 눈앞의 바람과 빛, 그것에 의한 한순간의 떨림” 등과 같은 것들은 합성으로는 흉내 내서 만들어 낼 수 없는 “살아 있는 흔적, 실제 그 순간의 빛”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양산될수록, 진짜 사진의 가치와 신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술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리얼리티, 저널리즘, 인물사진이 주는 감동은 바로 실재성과 시간성에서 나온다.

사실 사진의 역사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사진이 이 세상 역사를 증거하고, 예술로 가기 위한 “위기의 매체, 고난과 슬픔의 매체”였다.

1839년 다게르의 발명이 발표되자, 화가들은 충격을 받아 “이제 회화는 끝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회화는 새로운 길을 찾으며 인상주의 ⇒ 추상주의로 가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꽃피웠다.

과거 사진이 회화를 위협했듯이 지금은 마치 AI가 사진을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충격이야말로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사진의 본질을 더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사진가들은 “무엇이 사진을 사진답게 만드는가?”, “사진은 어떤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가?”를 성찰하면서 사진의 새로운 역할과 표현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3 사회 · 문화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진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

역사 기록, 저널리즘, 과학적 관찰과 기록, 법적 증거 영역 등은 현실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요즘 “딥페이크”같은 합성 이미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가짜 뉴스, 조작된 증거, 허위 정보가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이 사진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먼저 묻게 된다.

AI가 “사실을 꾸며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가짜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진짜 사진”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성이 더 빛을 발해서 중요해질 때 비로서 사진의 힘이 다시 드러난다.

카메라로 촬영된 “진짜 사진”은 여전히 신뢰의 근거가 되고, 오히려 가짜가 넘쳐날수록 진짜 사진의 가치와 책임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의 현실을 증언하며, 기억을 보존하는 일은 AI 합성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사진이 지닌 기록성은 인류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기에 “순수 사진 vs AI 이미지”와 같이 AI를 거부하며 사진다움을 고수할 것만이 아니고, “사진 + 포토샵”이 융합되었듯이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AI 디지털 프로세스를 회화의 붓처럼 도구나 톨로 삼아 보정 · 확장 · 재구성하는 형태로 새로운 융합의 길을 모색해서 공존하면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에 더 집중해서 사진의 오리지널리티(원본)의 유일성, 아우라의 미학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인 “사진은 과연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되돌아가면 결국 AI시대에도 사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능과 영역의 역할에 대한 재편(redefinition)이 일어날 것이다.

상업 · 재현 영역은 AI에 의해 잠식될 수 있지만, 사진은 실재의 흔적, 역사적 증거, 인간적 감정 등의 기록과 증거의 영역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진의 미래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진의 본질, 즉 “현실의 빛과 시간의 증거”라는 가치를 다시 확인하면서 AI 이미지 시대를 건너 새롭게 재정립될 것이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일수록, 사진은 AI가 만들어낸, 수 많은 가짜 이미지들 속에서도 “이 순간은 실제로 존재했다”고 더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사진이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다.

<AI 디지털아트 전문가 과정>의 작품을 통해서 본 사진 이후의 사진

글_조주는 경희대학교 미래교육원 <특별한 사진>, <AI와 사진> 교수. 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주임교수

사진은 기술의 변화를 타고 진화해 왔다. 필름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생성형 AI로 확장되었다. 이미지는 더 빠르게 생산되고 더 멀리 퍼진다. 그러나 핵심은 같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진가에게 AI는 대체재가 아니라 확대재다. 불가능했던 구도를 시험하게 하고, 사라진 시간과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가설로 호출하게 하며, 촬영과 편집의 경계를 다시 설계하게 한다. 프롬프트, 레퍼런스, 합성, 리터치, 시퀀싱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다. 아이디어가 표현으로 바뀌고, 표현이 스타일을 만든다. 동시에 사진은 AI의 과잉을 견제한다. 빛의 물리와 렌즈의 규율, 신체의 중력과 장소의 공기가 이미지를 현실과 연결한다. 질감, 원근, 색온도, 노이즈의 질서가 신빙성을 높인다. 이번 <AI 디지털아트 전문가 과정>의 작업은 이 두 축의 균형 위에서 있다. 상상은 과감하되, 표현의 기준은 분명하다. 결과물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가진 형식이었다.

작품은 질문에서 시작했다.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이디어 맵, 자료 출처, 프롬프트 버전, 합성 레이어, 편집, 출력의 마무리까지 끝까지 작품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생성형 AI는 도구이자 환경이다. 내일의 버전은 오늘의 상식을 곧바로 갱신한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사유로 방향을 정하고, 형식으로 과정을 증명하며, 윤리로 관계를 보호한다. 이번 작업은 그 기준을 실험하고 검증하며, 다양한 도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상상은 넓히되 절차는 촘촘히, 속도는 빠르되 표현은 정확히 유지한다. 기술은 변해도 태도와 원칙은 작업의 축으로 남았다.

우리는 작품을 통하여 결과보다 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작품은 완성물이자 과정의 압축이다. 보고 끝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학습의 단서다. 다음 시도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 상상을 넓히면 표현은 자유로워지고, 속도는 빠르고 정밀해진다. 기술은 변하고 태도는 남는다. 이 태도가 우리의 표준이 된다. <AI 디지털아트 전문가 과정> 작업이 그 기준을 공유하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

1. 백승의 「十二지화(十二之畫)」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12지간은 단순히 귀엽게 의인화된 캐릭터가 아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자리한 순수한 본성, 자연과 이어진 감각, 그리고 존재의 깊이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또 다른 자화상이다. 이번 작업에는 AI라는 현대적 도구를 사용했다. AI는 나의 상상력을 확장 시키는 새로운 붓이며,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AI를 통해 탄생한 열두 동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살아 숨 쉬는 존재로 재탄생한다. 이 과정은 동양 사상의 순환성과 조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호흡하려는 시도이다.

2. 국향숙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동물은 배경이 아니다. 아이의 감정과 상상력을 조용히 꺼내 주는 매개다. 책을 읽고, 그네를 타고, 노래하고, 춤추고,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아이와 동물이 함께 쓴 짧은 시가 된다. 그 시는 평가와 경쟁을 거부하고,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우리는 늘 가르치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이는 종종 작고 말 서툰 아이임을 이 작업은 상기시킨다. 장면들은 연출이 아니라 호흡을 맞춘 기다림에서 태어났다. 거대한 몸집도 위협이 되지 않았고, 아이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아이에게 동물은 친구이며, 동물에게 아이는 거울이다. 언어 없는 관계, 판단 없는 놀이라는 잃어버린 감각을 이 사진은 우리에게 다시 건넨다.

3. 김두철 <빛의 은유, 기억의 틈 - AI로 다시 쓰는 사진>



보는 행위, 의미를 부여하는 상상력, 기억과 감정의 재구성. AI는 이 세 축을 확장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시각화하고 물리적 현실 너머를 탐색하게 한다. 카메라 없이도 사진이 생성되는 오늘, AI 이미지 생성은 새로운 예술적

시도다. 빛 · 공간 · 고요 · 움직임은 재료로 인간 내면의 정서와 상상력을 가시화했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기술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감정과 철학을 품은 또 하나의 '사진'으로서 사진의 경계를 다시 그린다.

4. 김정인 <머무는 흐름>



사진은 멈춤을 담지만, 장노출은 그 멈춤 속 흐름을 드러낸다. 움직임에서 고요를 찾고, 고요에서 시간의 결을 꺼낸다. 물의 선, 바람의 떨림, 안개의 호흡처럼 사라지는 것을 기록해 왔다. 이번에는 현실의 물성과 상상의 경계에서 감정의 교차를 실험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머무는 법,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 각인되는 순간을 묻는다. 이 조용한 흐름이 독자의 감각과 만나 또 하나의 움직임이 되길 바란다.

5. 오재용 <강남. 시간의 지층_ Gangnam:The Strata of Time>

사진은 늘 현실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나는, 현실 너머의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다. 사라진 논밭, 사라질 표정, 아직 오지 않은 거리. 이 불완전한 틈을 메우기 위해, 나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감각기관을 빌렸다. AI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의 틈새를 탐색하는 탐험가였다. 1950년부터 2040년까지, 강남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도시의 생애를 따라 우리는 함께 걸었다. 나는 프레임을 구상했고, AI는 그 속에 시간을 심었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는 허구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기억이며,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기념비이다. 사진의 본질은, 결국 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해, AI와 함께 응답하고자 했다.



6. 이석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짓다.>



AI로 생성한 작품들은 실재하지 않지만 언젠가 가능할 세계의 건축을 호출한다. 건축은 삶과 세계관을 투영하는 매개라는 전제를 확장한다. ‘존재하는 건축’이 아니라 ‘존재했을 법한’ ‘존재하고 싶은’ 건축을 상상한다. 그 상상은 감정의 지형을 만들고, 도시의 신화를 갱신한다. 이미지는 설계도가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7. 이현준 <The End of Silence (침묵의 끝)>

“지구는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고, 여섯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이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후 재앙’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시각화한 시도이다. 우리는 파괴만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이다. 이 작품들이 무뎈진 감각을 흔들고, 침묵하던 양심에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미래의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이용욱 <어느 별빛의 이야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별을 쫓는 사진작가였다. 그 별빛 한 줄기를 담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시간의 밀도를 고스란히 프레임 안에 눌러 담았다. 그렇게 축적된 나의 사진 세계는 ‘기다림’과 ‘현장’ 그리고 ‘자연’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기술은 진화를 멈추지 않았고,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창작의 문을 또 하나 열어주었다. 나는 처음에 혼란스러웠고, ‘진짜’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AI는 나의 상상을 확장 시켜주는 또 다른 눈이자, 과거의 별빛에 담지 못했던 내면의 우주를 구현하는 새로운 붓이라는 것을.

이번 작품은 나의 첫 AI 창작 여정이자, 전통적 사진가로서의 시선과 새로운 상상력이 만나는 실험의 기록이다.

9. 이호연 <Space & Cosmic Landscape의 아름다운 동행>



A Beautiful Journey with Space & Cosmic Landscapes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사진 작업과 5년 이상의 우주 풍경사진 작업을 바탕으로 일상의 풍경을 우주 풍경로 재해석하는 ‘Cosmic Landscape’ 시리즈를 제작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해 보았다.

광활한 밤하늘,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상상 너머의 이미지들은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전하고 싶은 감정들의 또 다른 기이한 세계의 모습이다. ‘Space Landscape’는 과학의 도움으로 촬영해 낸 우주의 모습이고, ‘Cosmic Landscape’는 AI의 눈으로 확장된 감정의 우주이다. 그 둘의 만남은 과거와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 인간과 기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10. 임효례 <With You-곁에 있어 고마운 너와 나의 이야기>



(Our story, grateful just for being together)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다.

그중에서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아무 말 없어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들은 오랜 시간 지나도 잊히지 않는 따뜻함으로 남아있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눈빛, 손길, 그리고 스치는 미소 속에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

11. 정인호 <잠든 바다, 깨어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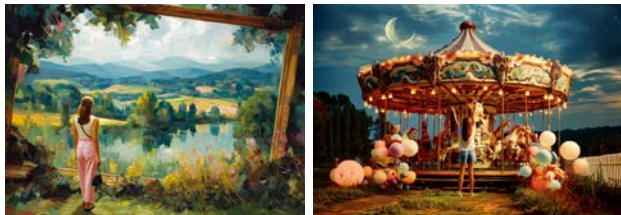
새벽의 정적 속, 사람은 없고 구조물과 어망만 어제를 증언한다.

AI 장노출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끌어 올렸다.

파도는 지워지고 물결은 부드러워지며, 오래된 감정이 떠오른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노동, 이 바다의 하루가 수면 위 윤곽으로 돌아온다. 이 작업은 풍경 기록이 아니라 시간과 존재를 되묻는 시도다. 멈춘 바다를 매개로, 관객이 스스로 삶의 기억과 정서를 감각하길 바란다.

12. 한지영 <나는 여전히 나왔다.>



나는 한동안 ‘나’를 잊고 타인의 기대 속에 머물렀다.

이 사진집은 흐려진 자아를 다시 마주하고 무너진 조각을 복원한 기록이다.

‘고독한 자유’에서 고요와 침묵 속에 가장 솔직한 나로 귀환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고, 고독했지만 살아 있었다.

‘경계 너머의 여정’에서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품은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전시 전경 -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제공



전시 전경 -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제공

닉 브랜트 사진전

The Day May Break 생존의 나날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당신은 좋은 조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미래 세대, 즉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지 못할 미래의 수십억 명의 인간과 동물, 나무들에서 미칠 우리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닉 브랜트



전시 전경 -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제공

9월 2일 대구의 사진전문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에서는 인류의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아프리카의 자연과 야생 동물들을 20여년간 기록해 오며 전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닉 브랜트(Nick Brandt)'의 사진전 〈The Day May Break〉 전시가 개최되었다. 닉 브랜트의 작품은 인류가 생태계는 물론, 인간 스스로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환경 영향력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의 시리즈로는 〈On This Earth〉 3부작과 〈This Empty World (2019)〉가 있다. 2020년부터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물을 담은 글로벌 시리즈 〈The Day May Break〉를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르단에서 촬영한 네 번째 챕터 〈The Echo Of Our Voices〉를 발표했다.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삶의 보금자리에서 이주와 피난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현실을 조망하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를 통해 '인류세'의 잔혹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삶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초상을 담은 프로젝트 〈The Day May Break〉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탄소 배출량이 낮고 산업화의 책임이 적지만 지역 특유의 기후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기후위기의 현실성과 세계적 불균형을 시각화한다. 〈The Day May Break〉의 첫 번째 챕터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케냐에서, 두 번째 챕터는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사이클론과 가뭄에 의해 보금자리가 파괴된 난민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챕터인 〈SINK / RISE〉는 오세아니아 피지에서 수중 촬영된 이미지로 기후변화가 불러온 해수면 상승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피지를 포함한 많은 태평양 섬들은 고도가 낮고, 경제 활동이 바다에 의존적인 구조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3%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근본적인 원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2, Ruth and Zosa, Bolivia, 2022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1, Fatuma, Ali and Bupa, Kenya, 2020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2, Jame and People in Fog, Bolivia, 2022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2, Juana and Tarkus, 2022

인을 제공하는 지구상의 제국들로 인해 이들은 가장 먼저 집과 땅, 삶의 조건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닉 브랜트는 바닷속이라는 환경을 통해, '미래의 풍경'을 현재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초현실적 장면을 연출한다.

작품 속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사이클론으로 인해 보금자리가 파괴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난민이 되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여러 보호구역에서 촬영한 동물들은 서식지 파괴에서부터 야생동물 밀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나는 인간과 동물을 동시에 같은 프레임에 담아

내며 급격하게 황폐화된 자연을 고스란히 마주한 이들의 경험을 전달한다. 작품 속에서 안개는 한때 인식할 수 있었던 자연의 세상이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시각 요소이다. 촬영 현장에서 기계가 만들어 낸 안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며 지구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는 산불이 뿜어내는 메아리이기도 하다.

– 닉 브랜트

'인류세(Anthropocene)'라는 말이 있다. '인류(anthropos)'와 '시대(cene)'의 합성어로 인간의 문명 활동에 의해, 새로운 특징을 지닌 지층이 생겼고,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지질시대로 지정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대기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3 – Sink Rise, Serafina and Keanan on Bed, Fiji,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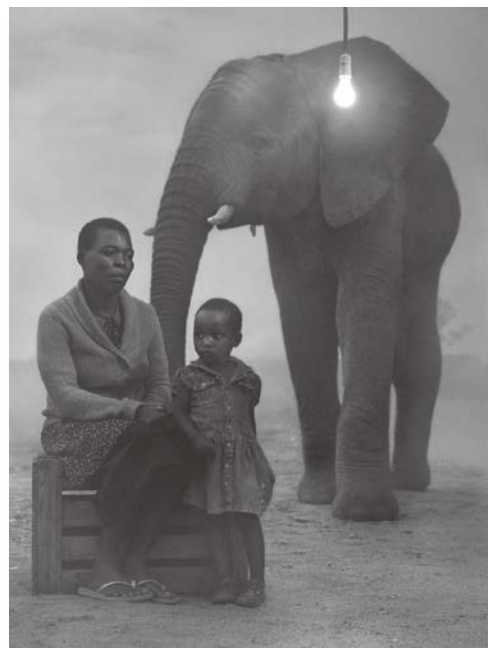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3 – Sink Rise, Peter by Cliff, Fiji, 2023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3 – Sink Rise, Ben and his Father Viti, Fiji, 2023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1, Alice, Stanley and Najin, Kenya, 2020



©Nick Brandt, The Day May Breake 1, Luckness, Winnie and Kura, Zimbabwe, 2020

상한 네덜란드의 '폴 크리첸(Paul Crutzen)'이 제시했다. 즉 인류세란 인류가 생활하며 지구 환경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변화가 좋은 쪽이 아니고 무척 나쁜 쪽으로, 아니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인류세라는 단어는 현재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 시대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로, 전환 혹은 재앙의 시기를 표현하는 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방사선, 플라스틱, 알루미늄,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퇴적물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들은 인간 활동의 증거로 지층에 쌓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해양 오염 등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인간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3℃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생태계의 절반 이상이 서식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생성과 멸종의 반복을 거듭한 지구의 역사에서 과거의 대멸종은 빙하기, 화산, 소행성 충돌처럼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원인이었으나 이제는 인류가 차근차근 대멸종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위험한 시기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 위태로운 결과로의 질주를 멈출 수 있도록, 미래의 세대를 위해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 계기들 중의 작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소개한다.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첨한 사진이
지닌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이젠 애니메이션 한류, 세계는 한국으로 케데헌 열풍

글 사진제공_최승언



갓쓰고 도포입은 캐릭터 모습

We're goin' up, up, up
높이, 높이, 더 높이

It's our moment
지금은 우리의 시대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하나 되어 더 빛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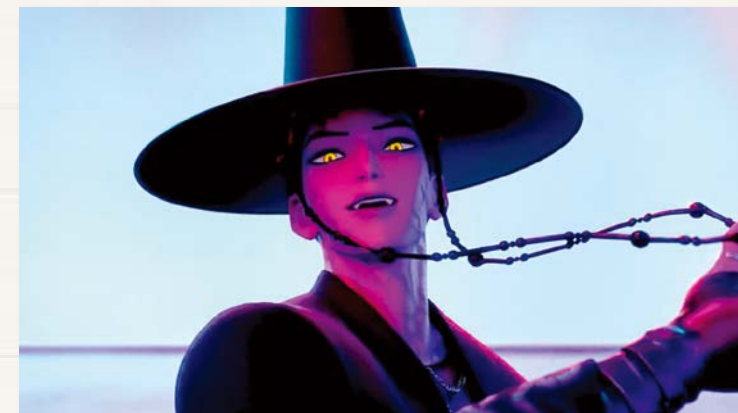
Gonna be, gonna be golden
찬란하게,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리듬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쾌한 고음이 번쩍이는 불꽃처럼 터져 공기를 황금빛으로 채우자 지구촌이 빠져든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영혼을 터치하는듯한 울림이 세상을 연결하는 빛의 사슬처럼 다가온다. 이제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다. 지금 가장 뜨거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이하 케데헌) 이야기다.

케데헌은 전 세계 팬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낮에는 화려한 무대

위 아이돌, 밤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데몬헌터.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무대와 굿판, 도시와 신화 속 영역을 넘나든다. 이들이 펼치는 애니메이션은 마치 드라마, 콘서트, 게임을 동시에 마주한 듯한 몰입감을 준다.

케이팝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과물과 맞서는 전투 장면으로 이어지고, 노래의 '킬링 파트'는 서사의 클라이맥스로 겹쳐진다. 관객



갓을 쓴 케데헌 캐릭터



한국 과자와 케데헌 캐릭터

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실제 공연을 체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미국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 넷플릭스 글로벌 배급이지만 전반에 흐르는 얼굴은 철저히 한국적이다.

주인공들의 갓과 도포, 한복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의상이 그렇고, 한옥 지붕, 성벽, 돌담길, 사찰 내부가 실물처럼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도 한국 일색이다.

까치, 호랑이, 학, 용 같은 전통 상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로 쓰이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다. 한국의 빛이 세계로 발산하는 케데헌의 시각적 매력은 이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철저한 전략과 계획 속에 케데헌은 단숨에 세계적 성공을 거두었다.

2025년 9월 14일 기준,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 누적 시청 수 3억 1,420만 회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로 등극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의 성과도 눈부시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기록은 BTS의 'Butter' 이후 K팝 곡으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또한 OST의 여러 곡이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총 스트리밍 수는 30억 회를 넘겼다.



캐데헌에 나오는 호랑이



캐데헌의 모티브를 제공한 한국 민화 호랑이와 까치

팬 커뮤니티 활동 역시 뜨겁다. 가입자는 900만 명을 돌파했고, SNS에는 '데몬헌터 댄스 챌린지' 영상이 250만 건 이상 업로드되었다. 서울 홍대에서 열린 팝업스토어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해 전통 의상과 탈을 착용하고 즉석 합동 댄스를 선보였으며, SNS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굿즈 매출은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웹툰, 모바일 게임, 관광 상품까지 확장되며 캐데헌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글로벌 문화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해외 학계에서는 캐데헌을 '21세기형 신화 콘텐츠'로 주목하고 있

다. 차세대 아이돌 그룹은 애니메이션과 현실 무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아티스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전통문화가 더 이상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산업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증명한 사례다.

캐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인바운드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데헌이 한국 전통문화와 K팝을 결합한 콘텐츠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모음에 따라 세계인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싶은 강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갓, 도포, 한옥, 전통 호랑이와 까치 등의 한국적 요소가 캐데헌 속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되면서,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캐데헌 장소가 된 낙산사 성곽

애니메이션 한편이 천문학적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문화적 목적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한국으로 오는 관광 수요 증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캐데헌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체험형 이벤트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홍대 팝업스토어에는 외국인 팬들이 전통 의상과 탈을 착용하고 즉석에서 댄스 참여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캐데헌 관련 활동은 참여형 관광으로 이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경제 및 관련 산업 확대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숙박, 음식, 교통, 굿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이다.

한옥 체험, 전통 예술 공연, 지역 축제와 연계된 상품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문화 기반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데헌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도 기대된다.

한'문화-예술 중심지'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 경제, 외교, 문화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

캐데헌은 한국 전통과 K팝의 에너지가 만나 세계 시장에서 폭발한 특별한 사례다. 갓과 도포, 한옥과 성벽, 까치와 호랑이, 학과 용은 한국인들 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살아 있는 신화가 되었다.

황금빛 파도처럼 물려온 캐데헌은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넘어,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신화는 이제 옛이야기가 아니다. 캐데헌 속 노래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올라가고 있다. Gonna be golden. 노래가사처럼 우린 황금처럼 빛날 것이다.

12인 사진가와 함께한 여행사진분과위원회 굴업도 출사

글_한명희(가평지부장) 사진제공_이운재(여행사진분과위원장)



©김홍찬



©한명희



©이정원

지난 9월 4일부터 6일 2박 3일동안 서해의 푸른 바다와 비밀스러운 섬 굴업도로 여행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운재)의 12인 분과위원들이 함께 모여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담아낸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갔다. 굴업도는 백패킹의 3대 성지 중 한 곳으로 섬 자체가 살아있는 갤러리라 볼릴 만큼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을 품고 있어 카메라를 드는 순간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었다.

새벽4시 사진가들은 삼각대를 짊어지고 개머리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길을 열어주듯 반짝였고 언덕 위에 오르자 은하수가 장대한 강처럼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셔터를 열어 10초에서 18초의 시간을 담아내는 상상을 하며 카메라 속에는 눈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또 다른 우주가 펼쳐졌다.

이후 새벽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을 먹는 사슴을 만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사방을 둘러 보았지만 언덕 위는 고요할 뿐이었다. 얼마 전 웅진군에서 사슴 개체수를 줄인다고 사슴을 포획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아님, 무더위에 숲에서 안 나온건가, 이런저런 아쉬움마저 은하수와 바람에 스며들어 풍경은 더 깊고 진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자연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한 장면 한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다.



©김범순



©김승철



©권영일



©최경순



©이운재

아침이 밝자 굴업도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무더위 속에서 가을을 연주하듯이 바람과 수크령, 그리고 바다와 아침 햇살의 조화는 왜 굴업도 인가를 인식시켜 주는 듯했다. 아침이슬에 젖은 바지와 운동화를 말리고 일출과 일몰의 맞닿은 곳 목기미 해변의 색다른 곡선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건너 넘어온 쓰레기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붉은 해변의 닻을 장노출로 담아내는 열정을 보았고, 코끼리 바위는 파도에 감싸이며 장대한 실루엣을 그려 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사이 바다는 매 순간 다른 풍경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숨을 고르며 셔터를 눌렀다. 개머리 언덕의 일몰은 여인들끼리 가족들끼리 멍때리는 풍경을 그려 냈다.

굴업도는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풍경은 끝없이 넓고 깊었다. 별과 은하수, 바람과 수크령, 기다림과 아쉬움 그리고 셔터에 담긴 긴 호흡까지 이번 출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이자 우리 마음속 깊은 별빛을 다시 불러낸 여정이었다.



©이운재



©최두환



•하드락액자(광학필름) •디아섹액자(아크릴)
•메탈액자(알루미늄판)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수중사진분과위원회 워크숍 및 촬영회 개최

글_김재영(수중사진분과 위원장, 사진_김형주(수중사진분과 부위원장))



포천 포프라자 다이빙 물 단계기념촬영



수중워크숍 이론강의
(김형주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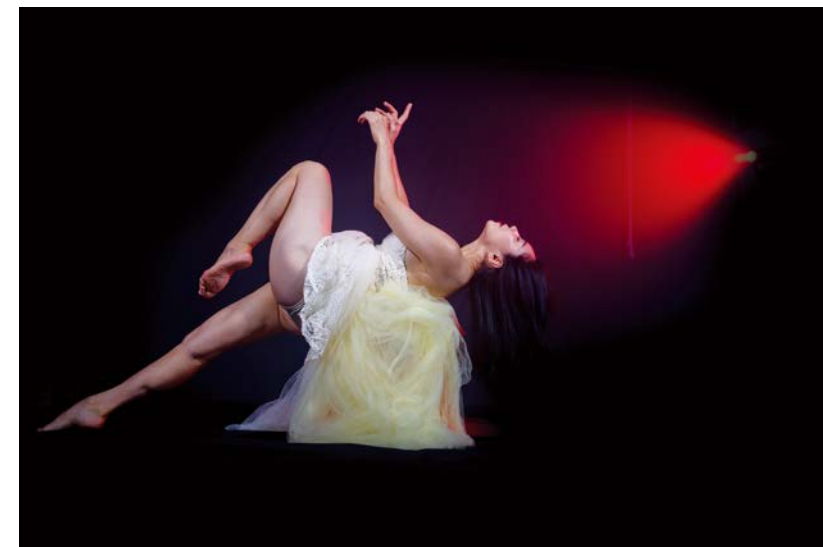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수중사진분과 워크숍 및 촬영회가 지난 9월 6일~ 9월 7일까지 1박 2일로 포천 포프라자 다이빙 풀 및 가평 아델하임꽃가람펜션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에 포천 포프라자에서는 수중사진분과 회원 중 초보자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스쿠버다이빙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수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날 수중강의에는 김형주 부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실습은 이진우 부위원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수중 경험이 전혀 없는 방미경(파주지부), 황보혜(평택지부) 회원은 스쿠버다이빙 장비 조립 및 실습을 통해 오후에는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입수 체험 다이빙에 성공하였다.

다이빙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오랜 경험이 없는 전영희(상주지부) 사무국장은 김재영 위원장 지도하에 5미터 다이빙 풀에서 자유롭게 스킴을 늘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오후 늦은 시간 다이빙을 마치고 가평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 후 한명희 가평지부장님 댁 내 아델하임꽃가람펜션 세트장에서 모델촬영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모델 연출은 강돈영이사가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수중사진분과 회원의 사진 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무료 봉사해 주신 강돈영 이사님과 촬영 세트장을

무료로 빌려주신 한명희 가평지부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중사진분과는 어려워하고 망설이는 회원 영입을 위해서 수중 워크숍을 자주 개최할 예정이다.

제4기 사진교육지도자 교육과정 수료식



수료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2025년 8월 29일(금),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9층 강의실에서 「제4기 사진교육지도자 교육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과정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54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사진교육의 전문적 역량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진예술의 역사와 이론, 교육 방법론, 창의적 촬영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수강생들은 사진을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교수법을 배우며, 향후 지역사회와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기간 동안 모범적인 태도와 뛰어난 성과를 보인 수강생들이 우수 수강자로 선정됐다. 수업 참여도와 과제 수행 결과는 물론, 강의계획서와 교안을 성실히 제작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실히 보여준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김정인 작가, 배복형 작가, 이병화 작

가, 장일미 작가, 정태만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시상이 진행되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 힘을 널리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진작가 협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꾸준히 확대하여 사진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기 사진교육지도자 교육과정 수료식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장이었다. 수료생들은 향후 사진예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사진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장일미, 김선애, 김정인, 유수찬 이사장, 이병화, 정태만, 배복형 수상자



양천구지부 이병화



평택지부 장일미



남양주지부 김선애



송파구지부 정태만



충주지부 배복형



송파구지부 김정인

서울 충무아트센터, 사진예술 허브된다 본회, 중구문화재단과 업무협약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는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사진 오른쪽)과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사진 왼쪽)



협약식과 관련하여 좌담 및 실무 의논을 하는 양 기관 대표 모습



국내 최대 사진예술 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인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이 2025년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의 대표 공공문화예술회관인 충무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사진 전시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진예술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다양한 사진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진예술을 지역 문화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은 “국내 최대 사진예술 단체로서 서

울의 문화재단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진예술이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은 “충무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사진예술이 시민 일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더 글로리우스 월드(The Glorious World)』가 진행 중이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구문화재단 누리집(www.ca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기 촬영지도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진 작품전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전·현직 임원 및 위원 단체 기념촬영



9월 4일(목) 오후 5시,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5에 있는 강서문
화원 강서아트리움 전시실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제3기
촬영지도위원회(회장 장준복) 창립 20주년 기념, ‘視, 순간을 담다’라는
주제의 사진 작품전시회를 이승주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장준복 회장은 초대 김정희 회장, 2대 이병윤, 3대 김부연, 4대 성상
경, 5대 최갑수, 6대 윤지한 전임 회장에게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장준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경상, 전라, 충청, 경기 등 전국에
서 멀다 않고 달려오신 위원님들, 고문들께 감사"를 전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10월엔 중국과 교류하는 사진축
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진진흥법이 확정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격려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은 "3기가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 촬영지도위원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촬영지도 방
식을 현대적인 방향으로 많이 개선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강서문화원장은 "다산 정약용 두 아들에게 ‘하피첩’이란 책을

남겨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쉬는 한양에서 살라했다. 지금이라면, 사진
전시회를 가장 많이 하는 강서구에서 살라했을 것."이라며 축하했다.
충청향우연합회 서신원 회장이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기 촬영지도위
원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한다." 며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란
다." 고 감사를 표했다. 48점을 전시한 제3기 촬영지도위원 전원과 내빈
과 임원이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날 참석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이성록 촬영지도위
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종곤 4기 촬영지도위원회 회
장, 김형덕 5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 김부연, 김삼택, 권기갑, 장영길 분
회 회원 사협 이사, 김승호 노원구지부장, 박국인 강서구지부장, 한국사
진작가협회 예술대학 총동문회 백승의 회장, 조용구, 김관식, 문형선 자
문위원, 서울 강서문화원 김진호 원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2020-2021 김석두 회장,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조복순 여성회장, 서
울 강서구 충청향우연합회 서신원 회장, 방송통신대학 총동문회 김흥진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서울 강서구총동문회 이건홍 회장, 김두한 운영위
원,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화곡본동 하경자 회장 등이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9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024년11월(70명) : 7,000,000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025년01월(108명) : 10,800,000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2025년03월(56명) : 5,600,000
□ 30대적립금(2023.3월~7월말) : 121,020,694	▷ 2025년05월(27명) : 2,700,000
계 : 1,230,910,380 (a)	▷ 2025년07월(33명) : 3,300,000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31,500,000 (3,255명/발전기금100,000/인)	○기타 계 : 101,408,914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 2명 제외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② 2018년 계 : 53,200,000	81,623 (29대 누계)
③ 2019년 계 : 100,900,000	50,819 (30대 누계)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 3명 제외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⑤ 2021년 계 : 27,700,000	17,034,173 (29대 누계)
⑥ 2022년 계 : 32,200,000	47,769,875 (30대 누계)
⑦ 2023년 계 : 16,900,000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⑧ 2024년 계 : 25,900,000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⑨ 2025년 계 : 22,400,000	○운용 계 : 400,000,000 (b)
▷ 2024년01월(50명) : 5,000,000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2024년03월(36명) : 3,600,000	
▷ 2024년05월(14명) : 1,400,000	
▷ 2024년07월(50명) : 5,000,000	
▷ 2024년09월(39명) : 3,900,000	
	□ 총 적립금 잔액 : 830,910,380 (a-b)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10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창원전국사진강좌	창원지부	9월 28일(일) 오후1시~5시	창원문화원 대강당
진주전국사진강좌	진주지부	10월 18일(토) 오후1시~5시	월드웨딩연출 스튜디오
제주전국사진강좌	제주지회	10월 26일(일) 오후1시~5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군산전국사진강좌	군산지부	11월 1일(토) 오후1시~5시	근대역사박물관 옆 장미공연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웅기(대구) 이사 별세
별세 2025년 9월 11일 발인 2025년 9월 13일

강치윤(안양) 회원 별세
별세 2025년 9월 9일 발인 2025년 9월 11일

박봉학(화성) 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5년 9월 8일 발인 2025년 9월 10일

이인형(춘천) 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5년 9월 4일 발인 2025년 9월 6일

신비의섬제주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 지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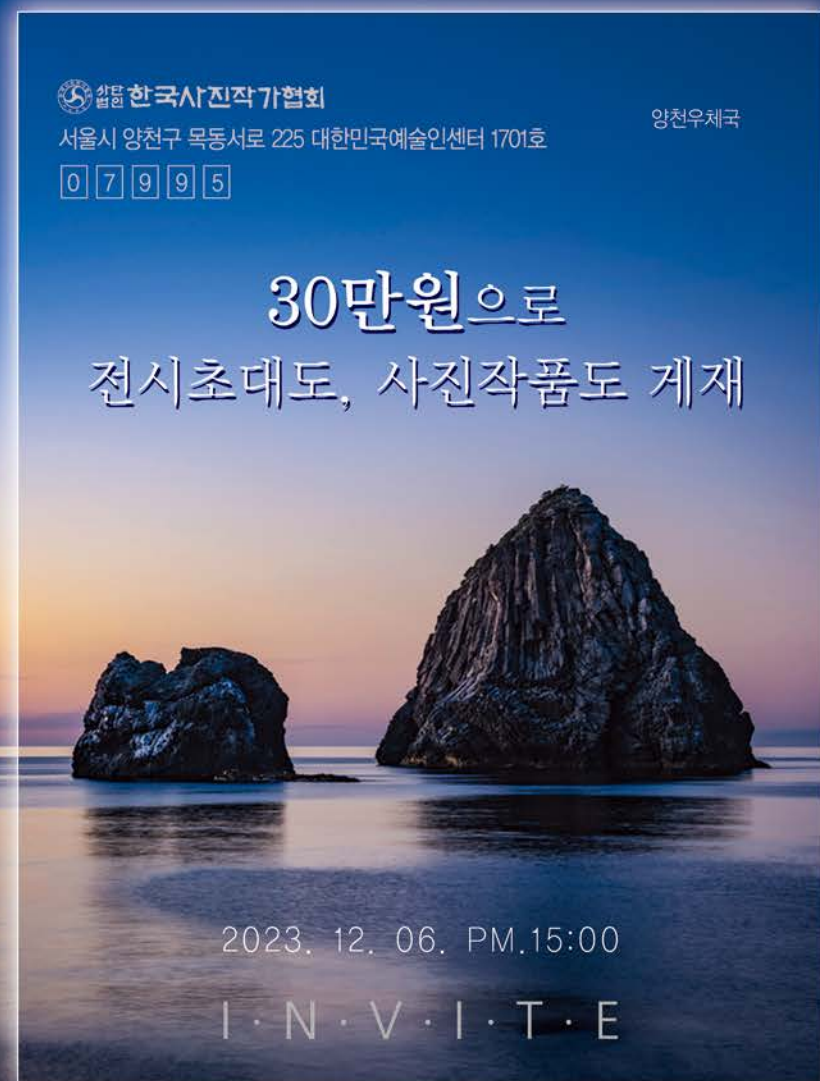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지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각하는 시선의 색과 선 2025 공주 올해의 사진작가전 “조은자”

전시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 10월 26일(일)
전시장소 아트센터고마
주최·주관 공주문화관광재단
전시작가 조은자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진이 보여주는 세계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추상인가. 이번 작품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감각과 기억의 파동 속에서 각자의 내면에 머물던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꽃잎의 색과 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자, 인간 내면의 기억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진예술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인간, 기억과 감성이 서로 어우러지는 장을 열며, 사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플라워 가든 - Flower Garden 아홉번째 조로옥 사진전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전하고자, 꽃이 피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섰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 때로는 우리나라의 최남단까지... 방방곡곡을 발품 팔며 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사계절의 꽃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대자연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넓은 화각 속에 담긴 꽃들은 관람객에게 깊은 사색의 순간을 열어주며, 자연이 선사하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30일(일)
전시장소 목포시립도서관 갤러리 1F
(전남 목포시 용당동 용당로160번길 32
Tel.061-278-3320)
전시작가 조로옥(010 7158 7666)

자작 : 침잠의 숲

이만우 개인전_아트스페이스 루모스 기획 초대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16일(일)
전시장소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39 Tel.053-766-3570)
(단, 월요일 휴관, 전시관람 화~토 10:00-18:00)
개 전 식 2025년 11월 1일(토) 15:00
전시작가 이만우(010-3505-2991)

숲속 물가에 곱게 누운 순백의 자작나무,
물결과 바람의 숨결이 시간을 멈추게 한 듯 고요하다. <중략>

긴 세월 침묵에 잠긴 외로움은 빛과
색의 결로 얹혀 파인더 속에서 세상으로 걸어 나온다.
나는 침잠의 숲에 화석처럼 머문다. <작가노트 중에서>



탄전시대 삶 ‘난장’

최동규 출판기념회 및 개인전

우리나라 탄광의 역사 100년!

전국에 총 342개의 탄광이 분포되어 있었고, 강원도는 172개 탄광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탄광이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도 태백은 일제강점기 1936년 장성광업소가 최초로 개광한 후 195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강원, 함태, 황지, 한성탄광 등 무려 45개의 탄광이 생겨 났으며 하청 업체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 탄광이 즐비한 전국 최대의 탄광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 <중략>

긴 세월 이어져 왔던 탄광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때 그 시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광부들의 작업 현장, 광산 풍경, 풍물, 주거환경과 폐광 후 지역 현안인 급감하는 인구와 침체되는 지역경제로 시민들의 대정부 대체산업 촉구와 생존권 찾기 투쟁, 광산노동자대회 등을 사진으로 되새겨 보고 기억해 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1일(토)
전시오프닝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3시
전시장소 태백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원로 203)
전시작가 사진가 최동규(010-5360-8986 / photo6817@naver.com)

경계없는 시선

2025 제36회 창원예술사진기획전 & 동우회 합동전



전시일시 2025년 9월 30일(화) ~ 10월 6일(월)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제4, 5전시실
오픈식 2025년 10월 1일(수) 18:30
참여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및
지부산하 6개 사진동우회

이번 전시는 '경계없는 시선'을 주제로, 특정 대상에 머물지 않고 모든 피사체가 하나의 큰 예술적 흐름 속에 있음을 탐구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기록된 풍경, 인물, 사물은 장르와 소재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표현과 시각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관람객 앞에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창원지부 회원들과 함께 지부 산하 6개 사진동우회가 참여하여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동우회 회원들에게는 사진전시의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사진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원예술사진기획전은 매년 새로운 주제를 통해 사진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참여 작가들의 깊이 있는 시선과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져, 지역 예술 문화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In Daegu 대구를 기억하다

한국영상동인회 2025년 제4회 대구지부 기획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9일(일)
전시장소 대구 대덕문화전당 제3전시실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78, 관람시간 10:00~18:00)
오픈식 2025년 11월 4일(화) 17시
참여작가 김일창(고문) 강위원(고문) 김경환(고문) 김효조
이만석 이원선 전순희 정나겸 최미숙 하의종

대구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이 생겨 나는 반면에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재개발이란 명목하에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2023년에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고, 대구 신공항 부지가 군위군으로 결정되면서 대구로 편입되었다. 2024년에는 수성못의 상징이었던 오리배가 자취를 감추었다.

사진은 찰나의 빛을 담는 작업이다. 작업을 통해 회원들은 그 현장을 고스란히 담으려 노력했다. 건물을 담고 사람을 담고, 축제의 현장을 찾아서 발품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물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기지개다. <작가노트 중에서>

보리수展II - 보리수와 솔꽃

전채영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9월 1일(월) ~ 10월 31일(금) - 다섯번째 개인전
전시장소 서울구치소 희망갤러리
전시일시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31일(금) - 여섯번째 개인전
전시장소 책마루중앙도서관
전시작가 전채영

보리수는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그 모습은 늘 새롭다.
빛과 계절,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속에서 나는 농부이자 사진가로서 보리수
앞에 서고, 그 안에서 자연과 인간,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중략〉
카메라는 그 은유의 세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시선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보리수와 솔꽃의 조합도 예술 속에서는 가능으로 피어난다.
그 자리에서 나는 삶을 기록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간다. 〈작가노트 중에서〉



1925~2025년 상용 라이카 카메라 100년 기획전

전시일시 2025년 9월 24일(수) ~ 12월 31일(수)
전시장소 한국카메라박물관 1층 전시실
(지하철 4호선 과천대공원 4번 출구)
관람문의 02-502-4123
전시후원 경기도, 과천시



1925년 Leica I(A) 모델에 Elmax 렌즈를 장착한 첫 모델의 상업적 출시는
사진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크루 마운트 시대의 다양
한 기종과 나치 독일시절 계슈타프(비밀경찰)가 활용한 카메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용으로 사용된 카메라 등 역사적 현장과 함께했던 라이카의 다
양한 면모를 선보입니다. 〈중략〉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카메라박물관이 소장한 희귀 빈티지 모델들이 한 자리
에 모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귀중한 ERNST LEITZ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뜻깊은 기획전이 될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5 PASK KOREA Photo Festa

12.04 Thu - 12.07 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주최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유일 -
사진예술 전문 대형 전시
올해 10회 대회 개최

전시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7시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 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s / 패스워드 kpass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 업로딩 일자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재 문의. 02-2655-3131

2025 연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5. 10. 1. (수) ~ 11. 15. (토)



공모개요

- 공모분야: 연천군을 소재로 한 관광홍보 가치가 높은작품
관내 자연생태, 자연경관(四季), 향토문화, 축제, 생활상,
특산물 등 연천을 대표하는 소재의 모든사진
-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 참가자격: 전국민 누구나 (입회점수 있음)
- 작품규격: 11" x 14" 칼라 및 흑백 (장정불요)
- 출 품 료: 2만원 (상장 및 작품집 발송료 포함)
- 입 금 처: 농협 301-0223-7061-31 (사)한사협 연천지부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필히 기재
- 출 품 처: 우11039 경기도연천군죽림읍양연로1388번길11
(구)연천사진작가협회사무실

심사일정

- 심사일시 2025년 11월중
- 심사발표 2025년 11월중(사협홈페이지 www.pask.net)
시상전시 심사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2점 (사)한국예총연천지회 연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5만원
- 입선 5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기타사항

- 동일작품이나 유사작, 합성작으로 판명될 경우 낙선 및 상권취소
- 입선(선)작 수상자는 시상식때 **의무참석**(대리참석 가능)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자송신 할 수 있음.
- 출품작 초상권 분쟁 발생 및 기타 제반권리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짐

문의 지 부 장: 010-4142-1200
사무국장: 010-2762-0879

- 주최: 연천군
- 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
-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연천지회



2025 제8회 미시령힐링가도 전국 사진공모전 요강

총상금 2360 만원

접수기간: 2025. 10. 20 ▶ 10. 31(소인유효)

"마음의 여유와 아름다운 자연이
내 안에 한 가득, 미시령 힐링가도"

공모전 요강

- 공모대상: 전국사진애호가
- 작품규격: 11x14(컬러사진, 장정불요)
- 필름은 슬라이드에 한하고, 디지털은 5MB이상
스마트폰 촬영 분은 공모 제외, 드론 촬영 분은 출품가능하나 비행 및
촬영허가증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심사제외)
- 출품수: 1인당 6점 이내
- 출품요령: 없음
- 출품방법: 우편 접수
- 작품접수: 2025. 10. 20(월) ~ 10. 31(금) (소인유효)
- 접수처: (2461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 미시령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담당자 앞
- 접수문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인제지부(지부장 010-5377-9549,
사무국장 010-5379-2649)
- 작품내용: - 공통사항: 타 공모전 입상작 및 유사작 제외, 미 발표작, 2024.1.10이후 촬영 작품
- 미시령 힐링가도 9경: 공작산 수타사(1경), 가리산 레포츠파크(2경),
용소계곡(3경), 원대리 자작나무숲(4경), 합강정-변지점프(5경), 소양강둘레길
(6경), 십이선녀탕계곡(7경), 백담사(8경), 울산바위(9경)
- 미시령 힐링가도와 주변 자연: 동흥천C부터 미시령TG까지 도로(44번,46번
국도)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풍경 등

주최 및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인제 관광 자원: 인제 8경, 산과 계곡, 폭포, 레포츠, 각종 축제, 문화, 문화제 등

시상내역

- 금상 1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5백만원
- 은상 1점: 인제군수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2백만원
- 은상 1점: 인제군의회 의장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2백만원
- 동상 3점: 인제군수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1백만원
- 가작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장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40만원
- 입선 80점(출품수 30% 이내):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장상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12만원
- 심사방법: 사전계 권위자 등으로 구성, 공개심사
- 심사일시: 2025. 11. 9(일) 10시 (남면체육관 예정)
- 심사발표: 2025. 11. 10(월) 한국사협, 한국사협 인제지부, 인제군청
홈페이지등
- 시상 및 전시: 2025. 12. 20(토) 11시, 산촌민속박물관(시상), 박인문화관
갤러리(전시)
- 전시기간: 2025. 12. 20(토) ~ 12. 24(수) 10:00~17:00(월요일 휴관)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부여
- 가작이상 입상자는 시상식 참석 의무가 있음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수상작을 협회 또는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선이상 작품은 저작자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제군의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낙선작은 별도 반송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이후 개별 발송함
- 촬영일시 및 장소, 원본필름 또는 디지털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작품과 과도한
후보정 작품은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
- 출품자에게는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이 있음
- 드론촬영분은 사전에 비행 및 촬영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출품시 허가증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심사제외)
-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기발표작, 타공모전입상작, 타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최고 7년간
입회유보.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2025 제8회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표]

출품 분야	☐ 미시령 힐링가도 9경 ☐ 미시령 힐링가도와 주변 자연 ☐ 인제 관광자원 및 축제, 문화	접수번호	
작품명		촬영구분	☐ 필름 ☐ 디지털
성 명		연락처	
주 소 (우)			
E-mail			
촬영 일시	촬영장소 (구체적으로)		



수원華城관광 전국사진공모展

제8회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계승하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이 남긴 향토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8회 수원화성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응모 방법

- 작품 규격 11x14인치 컬러 사진에 한함. 원판필름 및 디지털원본은 결과 발표 후 수상자(입선자 포함)에 한하여 제출하며 미 제출시 수상을 취소합니다.
- 접수 기간 2025. 9. 20(토) ~ 10. 20(월) 마감일 소인 유효
- 출품 자격 제한 없음
- 출품료 1인당 3만원(출품수 6점 이내)
- 접수처 우)1626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75번길 68, 2층(영화동)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 문의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지 부 장 윤 원 010-5318-8445 사무국장 구미원 010-7264-2208
- 심사 공개심사 <2025. 11. 1(토)>
- 심사발표 2025. 11. 3(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홈페이지
- 전시일정 2025. 11. 25(화)~11. 30(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시상식 2025. 11. 25(화) 오후 4시,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시상내역

작품 내용

- 수원화성의 4계
- 수원의 관광자원 및 문화유적지 등을 소재로 한 작품
- 수원의 전통시장 모습
- 수원시내에서의 모든 야외 행사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작품.
- 사진 뒷면에 이름,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필히 명기.
- 포트폴리오 사진 6매로 구성되어 11x14inch에 얹혀서 제출.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선작품 이상의 사진 사용권은 수원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 및 수원과 관계없는 작품으로 판명될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드론 사진은 촬영 허가증 첨부.
- 합성 및 AI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
-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음.
- 초상권을 비롯하여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 자세한 사항은 지부장 T. 010-5318-8445, 사무국장 T. 010-7264-2208 문의바람.
- 송금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할 경우 입상(입선) 본인 부담.

주최 수원특례시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후원 수원시의회 사)한국예총 수원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시 상	수량	내 역
금 상	1점	수원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수원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점	수원예총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가 작	5점	수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상	5점	수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입 선	80점	수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 상금은 세금공제 후 입금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접수마감 2025년 11월 13일(목)도착분 (입회점수 있음)

공모내용

-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사진 (행사, 전시, 공연, 체험 등)
- 엑스포 행사기간중의 각 분야의 사진 장면 (주요행사내용, 스케치 사진, 다양한 장면의 사진들)
- 기타 엑스포와 관련된 스틸사진 등

촬영대회 안내

대회일시 2025년 9월 21일(일) 10시 / 제천한방생명과학관 1층 대강당

입 장 권 참가자에게 엑스포 입장권, 중식제공은 9월 21일 하루만 배부 (출입은 주게이트 종합안내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에서 배부하는 엑스포 입장권을 받아서 입장) 이 외 엑스포 기간 중 촬영은 참가자 직접 입장권 구입 후 촬영하여 함.(행사기간 중 촬영대회 부스운영은 하지않음)

행사기간 2025년 9월 20일~2025년 10월 19일(엑스포 행사기간)

찾아오시는길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왕암동)

출품안내

작품규격 11"x14" 칼라 디지털사진(JPG파일4,000*3,000픽셀, 해상력250dpi이상)

출품수량 (1인 4점)

출 품 료 1인당 3만원

출품요령 작품뒷면에 제목, 주소, 성명, 전화, 우편번호 기재

접 수 처 우) 27186 충북 제천시 내제로75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문의처) 043-648-0133, 010-3454-0102

접수마감 2025년 11월 13일(목)도착분 (입회점수 있음)

심사및발표 2025. 11. 15. 공개심사 후 사협 홈페이지 게시

시상및전시 없음

시상내용

금상 1점 엑스포 조직위원장(도지사)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제천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제천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제천한방재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내외)

기타사항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인-행사상의 법적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입상 및 입선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된 작품은 엑스포조직위원회 및 제천시에 귀속되며 향후 홍보용으로 활용됨
- 지적재산권 침해작품, 제3자에게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작품, 컴퓨터 그래픽 합성사진으로 판명된 작품, 타인의 영의 저작물 및 명의 도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상권과 상금이 환수 될 수 있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문제작 심의 규정에 따라 조치됨
- 입상 및 입선된 작품은 심사발표 후 7일내 원본 파일 사무국장 메일<otterkang@naver.com>로 제출하며 미제출시는 상권 취소 함.
- 낙선작은 심사장에서 반출하고 미 반출작은 폐기 함.
- 작품은 엑스포 행사 기간과 촬영대회 개막 당일 모델연출 작품을 원칙으로 함.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부여.

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후원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EXPO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한국사진작가협회

2025 곡성관광전국사진공모전

(입회 접수 있음)

깨끗한 섬진강을 배경으로 기차마을과 장미공원(1,004종)을 비롯하여 대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2025 곡성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모 분야

주요 관광지 섬진강기차마을, 철쭉꽃길, 함허정, 압록유원지, 청소년야영장, 충의공원, 대항강 자연휴식지, 섬진강 돌레길, 섬진강 레일바이크, 죽곡카누체험장, 심청호행길, 섬진강 습지, 기차마을 전통시장 등

사찰 및 문화재 태안사, 도림사, 관음사, 성운사, 옥과미술관, 단군전, 곡성향교, 옥과향교, 덕양사원 등

자연경관 섬진강, 대항강, 동악산, 설산, 통명산, 도림계곡, 태안계곡, 원호계곡, 청계계곡 등

축제 장미축제,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어린이축제
기타 관광 상품적 가치가 표현되고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곡성군 내의 사진으로 미발표된 작품

작품규격

- 11in x 14in 디지털컬러사진,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촬영일시, 장소를 기재한 출품표 부착
- * 2023년도 이후 촬영분에 한함,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출품료 : 2만원

사진접수기간 2025. 9. 30.~11. 10.(마감일소인우호)

심사일시 : 2025년 11월 15일(예정/공개심사)

심사발표

2025년 11월 17일(예정)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개별통지

시상 및 전시 : 2025년 12월말(예정)

시상내역(작품료)

- 금상 (1점)** 사협곡성지부장 상장 및 작품비매입 200만원
- 은상 (2점)** 사협곡성지부장 상장 및 작품비매입 각 100만원
- 동상 (3점)** 사협곡성지부장 상장 및 작품비매입 각 50만원
- 가작 (5점)** 사협곡성지부장 상장 및 작품비매입 각 30만원
- 입선 (60점)** 사협곡성지부장 상장 및 작품비매입 각 10만원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57559 전남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8 (현대사진관)
한국사진작가협회 곡성지부
문의처 : 사협곡성 지부장 (010. 3606. 3125) / 사무국장 (010. 3070. 5721)

기타 유의사항

- 입선 이상 작품은 가로 3000pixel 이상 원본파일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발표 후 7일 이내에 요구한 이메일로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상권 취소, moonbj0317@daum.net)
- 출품작품 중 초상권 분쟁 발생 시 기타 모든 제반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지며, 과도한 포토샵은 지양바람
-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측은 그 사용권을 가지며 비영리 목적에 홍보 등을 위해 변경 사용할 수 있음
- 낙선작은 작품집과 함께 반송함
- 각종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선·입상 시 상권 취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징계기준에 준함

후원 : 곡성군

주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곡성지부

2025년 제35회 정읍(창작&관광)전국사진공모전

◆ 접수마감 : 2025년 11월 04일(금) 도착분(사협 입회접수 인정)



응모분야

- 창작분야 : 순수 창작사진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발표 자유작
- 관광분야 : 정읍시의 경관, 문화, 유적, 재래시장, 축제 등 정읍시 홍보에 적합한 작품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전국 사진 애호가
- 작품규격 : 흑백 및 칼라로서 11"X 14", 장정 불필요, 미발표 자유작
- 출품료·출품수 : 1인 분야별 각각 3만원. 창작분야 4점, 관광분야 6점
- 출품요령 : 창작, 관광 분야 구분,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기재
- 문 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
010-5203-6257, 010-9653-2532
- 접 수 처 : (우: 5619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월영2길 39(쌍암동)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

행사일정

- 접수기간 : 2025년 11월 4(화) 도착분
- 심사일시/장소 : 2025년 11월 6일(목) / 정읍시예술회관 전시실 공개심사(공정)
- 심사발표 : 2025년 11월 7일(금) 한국사협 홈페이지, 정읍지부 홈페이지
- 시 상 식 :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전시기간/장소 : 2025년 12월 1일(월)~7일(일) 7일간 / 정읍시예술회관 전시실

시상내역

- 금 상 1명(창작분야 1명) 상금 1,000,000원 정읍시장 상장
- 은 상 2명(창작분야 1명, 관광분야 1명) 상금 각 500,000원 정읍시의장 상장
- 동 상 3명(창작분야 1명, 관광분야 2명) 상금 각 300,000원 정읍예총지회장 상장
- 가 작 5명(창작분야 2명, 관광분야 3명) 상금 각 200,000원 정읍지부장 상장
- 장려상 5명(창작분야 2명, 관광분야 3명) 상금 각 150,000원 정읍지부장 상장
- 입선작(창작분야 및 관광분야의 총 출품수의 20%이내) 정읍지부장 상장
※ 관광분야 입선작 60점 상금 각각 100,000원

기타사항

- 입선자는 7일 이내 원본파일(입상자: 원본파일+통장위에 신분증 사본)을 boneri@naver.com으로 제출한다.
- 입상·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수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작품에 대한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음.
- 합성작품,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인 경우 상권 취소 및 상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입상·입선자 전원에게 사진집 증정(출품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주최: 정읍시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
◆후원: 정읍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연합회 정읍지회

※본 홍보물은 정읍시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진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문화와 관광의 도시 진주를 널리 홍보하고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등 숨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 진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모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마감 2025년 11월 12일(수) 도착분

공모주제 “시즌 II 진주, 사계를 품다”	
구분	기존 관광지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진주성, 남강, 진양호, 금호지, 경상남도수목원, 강주연못, 월아산숲속의진주, 용호정원, 진치령터널, 일호광장 진주역, 진주대첩역사공원, 지수송산마을, 진주의 야경(유등공원, 물빛나루섬터, 남가람별빛길, 철도문화공원, 진주남강 유등전시관) 등 진주의 관광명소 내 사계절 자연경관 또는 야경이 어우러진 작품
축제 및 문화행사	2025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별밤피크닉, 자술랭 투어, 진주 M2페스티벌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 시책을 담은 작품 (※유등축제 및 진주 논개제 제외)
생활상	마을풍경, 도시전경, 전통시장 등 진주의 다양한 모습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
기타	진주의 숨은 명소 등 사계절 다양한 진주의 모습을 담은 작품

- ※ 단순 인물 위주의 모습을 담은 작품 제외
- ※ 기존 수상작들과 동일한 주제 및 촬영구도 지양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 14세 미만의 참가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작품규격 : 11"x 14" 칼라사진, 테두리가 없을 것
(네가티브, 슬라이드 필름사진 판별 불요)
- 출 품 작 : 1인당 4점 이내
(진주시 2024년 1월 이후 촬영사진으로 타 공모전 미발표작)
- 출 품 료 : 없음
- 접수기간 : 2025. 10. 20.(월) ~ 11. 12.(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rlee1970@naver.com)
- 신청서류 : 응모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품 및 출품표
※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 출 품 표 : <https://www.pask.net/>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출품요령 : 사진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하여 출품용 인화파일 (jpeg와 사진원판 디지털, 네가티브, 슬라이드)을 동시에 제출 (미제출 시 접수불가)

기타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 작품이 아니라더라도 연사 작품의 일부가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합성/조작/변형사진은 입상 취소 및 향후 3년간 진주관광사진 출품을 금지합니다. 다만 파노라마 사진은 허용합니다. ● 입상작품은 입상작 전시회 및 입상작 도록 등의 제작에 활용되며, 국내외 한국(진주)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활동과 홍보물 제작에 사용됩니다.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만-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정수 인정합니다. ●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하며 응모를 위해 제출된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항공법을 준수하여 촬영한 사진의 EXIF에서 촬영지 위치정보와 고도 촬영 시간 등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추후 비행 허가 및 촬영승인 내역 등 자료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심사 후에는 입선 입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입상자 본인 부담합니다. ● 출품 작품의 규모 및 품질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의견에 따라 결정하며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지부장(010-4924-5894)에게 문의바랍니다.

주최 진주시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출품자격** 제한없음(전국 사진애호가)
- 작품내용** 계룡명소9경, 계룡산, 농촌풍경, 도시전경(사계절), 계룡시축제, 문화유적, 재래시장, 특산물 등
- 작품규격** 칼라사진 11x14" (장정불요)
- 출품수/출품료** 1인당 6점이내, 2만원
- 촬영일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작품에 한함, 드론 촬영 작품 인정
- 접수마감** 2025년 10월 26일(당일 소인유효)
- 접 수 처** 우)32829 충남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8-19(한국예총 계룡지회 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 문의처** 지부장 010-4188-0120, 부지부장 010-5081-7191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명기
- 심사일시** 2025년 11월 1일 (예정)
- 심사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2025년 11월 2일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시상내역**
 - 금상 1점 - 계룡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2점 - 계룡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작 5점 - (사)한국예총 계룡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입선(입상작 포함 출품작 수의 20%)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시상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15:00 (예정)
- 시상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 전시기간** 2025년 12월 11일 ~ 14일 (4일간 예정)
- 전시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 작품반출** 작품집, 낙선작은 시상식 후 개별 발송

기타(유의)사항

- 입상(선)작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수상작을 협회 또는 도서 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입상(선) 작품은(2025년 11월 1일 ~ 7일)이내에 원본 파일을 e-mail kyhjcs@hanmail.net(작품파일크기 3200픽셀 이상) 제출하며 미제출 시 상권 취소
- 계룡시는 군사지역으로 드론 촬영 시에는 촬영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함.



제7회 장수군 축제 관련행사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자 전국 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국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5. 10. 23. ~ 11. 6.까지

참가요강

- 작 품 내 용 : 장수군 축제 행사 사진과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행사사진 (2025. 9.18 - 09.21)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에 한함)
- 출 품 규 격 : 11×14인치 컬러 및 흑백
- 출 품 자 격 : 제한없음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1인당 4점 이내
- 출 품 방 법 : 작품 뒷면에 제목,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촬영장소 기재
- 출 품 마 감 : 2025년 11월 06일 도착분
- 출 품 장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86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 지부장 : 010-9697-7939, 사무국장 010-6803-7479

작품심사

- 작 품 심 사 : 2025년 11월 08일(토) 10:00 공개심사 (장소: 장수 군민회관)
- 발 표 : 심사후 장수지부 카페에 게시 <http://cafe.daum.net/jangthirteen>
- 시 상 : 2025년 12월 11일(목) 14:30
- 시 상 장 소 : 장수 군민회관
- 출 품 작 품 : 입상 및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수상작을 협회 또는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낙선작품은 자체폐기 처분하고 작품집만 우편발송

시상내역

- 금 상 1 점 : 장수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 상 2 점 : 장수군의회위원장 상장 및 상금 각 70만원
- 동 상 3 점 : 사)한국예총 장수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 작 5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입 선 40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유의사항

- 입상 및 입선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출품한 합성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동일작품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될 경우 추후라도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자격이 유보 됨
- 입상, 입선작품은 7일 이내에 원본파일 3000×2000픽셀 이상을 이메일 psw1245@hanmail.net 제출 (미 제출시 상권 취소)
-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계좌이체 시 공제후 지급)

제3회 철원관광(사시사철)전국사진공모전

2025년 10월 10일(금)-도착분(사업 입회점수 있음)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비경과 철원군만이 만들어 가는 사계절 자연풍경과 문화유적 관광지 등 아름다운 사계를 전국 사진애호가와 동호인을 통하여 철원을 널리 홍보하는 철원관광(사시사철)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까지 (공모전 6시 마감)

작품내용

- 자연경관 : 고석정꽃밭, 주상절리 잔도길, 한탄강 물윗길의 비경과 절경 등 철원9경의 아름다운 사계절 자연풍경
- 문화유적 : 철원의 문화유적지 사찰, 전통문화 예술행사 등
- 지역축제 : 철원축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 생활문화 : 철원생활문화 축제 등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료 : 20,000원(출품료 계좌 농협 : 301-2018-9180-51 [출품료 없을 시 무효 처리])
- 작품규격 : 인화 사이즈 11×14인치(컬러 및 흑백), 장정불요
- 출품요령 : 사진 뒷면에 출품표 부착. 작품명/성명/연락처(자택, 휴대폰)/주소(우편번호 기재)/촬영장소, 일자 기재
- ※ 주소지 불명, 핸드폰 연락 안 될 경우 무효 처리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 접 수 처 : 철원문화원 우)240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42
- 문 의 : 지부장 010-3075-7204, 사무국장 010-5920-7414

작품시상

- 금 상 : 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은 상 : 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동 상 : 3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가 작 : 5점 사)한국예총 철원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철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5만원(30% 이내)
- ※ 심사비와 시상금에 제세공과금 발생.

작품심사

- 심사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 심사장소 : 철원군청 대회의실
- 심사방법 : 공개심
- 심사발표 : 2025년 10월 16일(목)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철원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수상작품 전시

- 개 전 : 2025년 11월 3일(월)
- 시상장소 : 철원문화원 전시실 / 2025년 11월 4일(화) 오후 2시
- 전시기간 : 2025년 11월 3일(월)~11월 7일(금)
- 전시장소 : 철원문화원 전시실

유의사항

- 입선이상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됨
- 입상, 입선된 작품으로 인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한 드론사진과 작품이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에 한하여 철원군 홍보자료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합성작품, 동일작품 또는 타 공모전 수상작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상금도 반환하여야 함
- 출품된 작품은 반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으로 본 공모전 요강을 숙지하였고, 이에 따른다는 것으로 간주함



제15회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5.10.30.(도착분) 입회 점수 있음.

- 출품자격** 제한 없음(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출 품 료** 카메라 부문 : 20,000원 / 휴대폰 부문 : 없음
- 작품내용** 숨겨진 충주의 매력과 감성이 머무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으로 응모작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촬영한 미발표 작품 (공모 주제) 충주, 순간이 추억이 되는 곳!
- 작품규격** 카메라 부문 : 11 X 14 인치 / 입회점수 있음 (칼라 사진에 한함)
휴대폰 부문 : JPEG(JPG) 파일 / 입회점수 없음 (3,000픽셀, 3MB 이상, 칼라 사진)
- 출 품 수** 카메라 부문 : 6점 이내 / 휴대폰 부문 : 4점 이내
- 접 수 처** 카메라 부문 : 우) 27388 충북 충주시 관아5길 10 (예충회관 2층)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
휴대폰 부문 : 이메일 접수 billssun@naver.com
- 문 의 처** 사무국장 010-6296-2560
- 출품요령** · 응모작은 출품표에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촬영장소 등을 기재
· 드론사진은 출품 시 비행 및 촬영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함.
· 휴대폰 사진 부문은 충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뒷모습 등(정면의 경우, 초상권 침해 우려)이 포함되어야 함.
- 심 사** 2025년 11월중 예정 /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 공개심사 예정
- 심사발표** 카메라 부문 : 2025년 11월 중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개별 통지 안함
휴대폰 부문 : 충주시 관광과 공식 SNS "충주여행" 3종(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 전시·시상** 2025년 11월중 충주시청 중앙로비 예정(휴대폰 부문은 SNS 온라인 "충주여행"전시에 한함)

구분	시상	작품수	상금	상 장	구분	시상	작품수	상금	상 장
카메라 부 문	금상	1점	200만원	충주시장상	휴대폰 부 문	금상	1점	30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은상	2점	각 100만원	충주시의회 의장상		은상	2점	각 20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동상	3점	각 50만원	충주예총 회장상		동상	3점	각 10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가작	5점	각 20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입선	10점	각 5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입선	40점	각 10만원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장상 (단, 출품작의 30%이내)					

- 기타사항**
- 선정된 작품의 초상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한 드론사진 등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지며,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사용권은 충주시에 귀속되어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응모작은 참가 관련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상·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가 인정되며(휴대폰 부문은 입회점수 없음), 합성작품, 기 발표작, 유사작, 충주시 관내 사진이 아닐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상금은 반환한다.
 - 색보정 등의 기본적인 후보정은 허용하나, 현상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경우에는 상권을 취소하며 상금은 반환한다.
 - 문제제적으로 판명되어 상권 취소 시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카메라 부문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파일(RAW, JPG) 및 해상도 300dpi, 장변이 3,000pixels 이상의 JPEG 작품파일을 제출하여야함. (E-mail : billssun@naver.com)
 - 카메라 부문 금상은 전시용 사진(20"×24"), 은상 및 동상은 전시용 사진(16"×20")으로 인화 및 액자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 휴대폰 부문은 오프라인 전시 없으며, 온라인 전시함.
 -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카메라 부문은 전시 종료 후 출품자에게 작품집 개별 발송
 - 입상 및 입선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판단여부는 주관처 결정에 따른다.
 - 카메라 부문과 휴대폰 부문 중복 응모 가능함.
 - 상금수령자는 필히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주최 : 충주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 후원 : 충주시의회, (사)충주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1회

증평 전국사진 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증평전국사진공모전에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마감
2025년 11월 28일

공모요강

작품내용 미발표 자유작품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 14"(4점 이내)

접수마감 2025년 11월 28일(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전시장소 증평 보강천 갤러리

시 상 식 추후 발표

접 수 처 [증평예총]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 증평문화원내

심사발표 2025년 12월 8일(예정)

증평지부 홈페이지 참조 www.paskjp.kr

시상내역 **금상 1점** 한국사협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3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및 상금 10만원

가작 5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장려 5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입선 접수 작품수의 20%내(입상 포함)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입선·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에는 상권이 취소되는 물론 한국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 입회자격이 유보됩니다.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합니다.
 - 입상 및 입선자는 jppask@naver.com으로 작품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도록 제작용)

문 의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지부장 010-5469-9567 · 사무국장 010-8255-8219



제33회 의정부 회룡전국 사진공모전

The 33th Hoeryong National
Photograph Contest

2025. 11. 7 (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 14" (규격엄수, 장정불요)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작성

작품명, 주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기재하여 부착요망

출품수 · 출품료

4점 이내 / 1인당 20,000원

접수처 및 연락처

116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80번길 18 의정부 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010 2911-3865

심사일시 · 심사장소

11월 중순 / 미정

전시 · 시상식

추후 통보

★ 입회점수: 있음

제7회 행정수도 세종 전국사진공모전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 **도착분

▶ 출품자격 : 제한없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출 품 료 : 1인 20,000원 / 4점 이내

▶ 작품내용 : 자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미 발표작

▶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x14" (장정불요)

▶ 접 수 처 :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37-1,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세종지회

▶ 연 락 처 : 지회장 010-8800-7131, 사무국장 010-3570-8089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성명, 작품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기재한 출품표 부착

▶ 심사일시 및 장소 : (예정)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2시 세종문화원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결과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pask.net)

▶ 시상내역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2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20만원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세종지회 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세종지회 지회장 상장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세종지회 지회장 상장

입 선 (입상작 포함 총 출품작 수의 20% 내외)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세종지회 지회장 상장

▶ 개전 및 시상일시 : 추후통보

▶ 전시기간 : 추후통보

▶ 작품반출 : 출품된 작품은 반출하지 않음. (입상·입선작은 본 지회에 귀속되고, 낙선작은 모두 자체 폐기함)

▶ 유의사항

- 입상·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타 공모전 입상·입선작, 모방작, 기 발표작으로 판명되면 입상·입선 취소는 물론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조치,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자격 상실.

- 입상·입선작은 심사 발표 후 3일 이내 긴 번이 3,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을 메일로 제출

E-mail: sr4773151@nate.com (성명·작품제목_지역 순으로 파일명 작성)로 제출 요망. (미제출시 상권 취소)

-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입상·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 할 수 있음.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며, 장려상 이상 입상자는 시상식에 꼭 참석(대리참석 가능) 해야 되며, 미 참석시 시상금은 지역 이웃 돕기 성금에 사용.

- 작품집은 전시가 모두 종료된 후에 개별 발송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구분	인원	시상 내역
금 상	1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 상	2명	의정부예총회장 상장
동 상	3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가 작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장 려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입 선	총 출품수의 20% 내외 (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 입상 · 입선된 작품은 당 지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 입선한 경우 상권취소와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따라 조치함.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으며, 상장은 종료후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함.(국내)
- 입선 이상의 수상자는 발표후 7일 이내에 원본파일을 photo2478@hanmail.net 으로 보낼것.



제4회 마산전국사진촬영대회

촬영일자

2025년 11월 1일(오전10시~오후3시)

대회장소 :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장 (3.15 해양누리공원 일대)

참가자격 : 제한없음

출 품 료 : 1인당 3만원(당일 행사장에서 접수)

참가신청 : 현장접수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

작품내용 : 1)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장의 아름다운 전경과 모델
당일 모델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2) 축제기간중 촬영한 작품(11월 1일~11월9일)

출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x14인치(장정불요)

출 품 수 : 4점 이내

접수마감

2025년 11월 26일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 1길 43-17 그린나래

연 락 처 : 지부장 : 010-8765-9005 / 부지부장 : 010-3866-9078

출품요령 : 접수증 원본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나머지 작품은 사본사용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심사일자 : 2025년 11월 29일

심사장소 : 마산사진회관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2)

심사발표 : 2025년 12월 04일 한국사협 홈페이지 발표

전시기간 : 2025년 12월 중순

전시장소 : 마산문화예술센터(시민극장)

시상내용 : 금 상 :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 상 : 3점 마산예총회장상 상장 및 상금 10만원
가 작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 상장
장려상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 상장
입 선 : 총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포함)

기타사항 :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2. 입상, 입선작의 사진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주최측은
도서출판 등 공익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3. 유사작 및 동일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회 자격이 유보됨.
4.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낙선작은 개별반송하지않음 (작품집과 상장만 우송함)
6. 입선, 입상작은 심사발표 후 5일 이내 원본화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될수있음(sw9078@naver.com)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

후 원 창원특례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마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3회

광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5년 10월 13일(월) (마감당일 소인 유효)

사진예술의 저변확대와 사진 동호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광양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 사진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작은 물론 광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출품하시기 바랍니다.

응모방법

- 출품자격 : 제한없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은 작품으로 국내·국외 미 발표작
- 출 품 료 : 1인 20,000원 (작품집 증명)
- 작품규격 : 흑백, 칼라사진 11" x 14" (장정불요), 디지털사진 3000pix 이상
- 출품수량 : 2점 이상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꼭 정확히 기재할 것)
- 접수마감 : 2025년 10월 13일(월) 당일 소인유효
- 접 수 처 : 우편번호 57744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63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
- 문 의 처 : 지부장 010-3626-0545 / 사무국장 010-4604-8903
- 심사일시 : 2025년 10월 26일(일) 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25년 10월 27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pask.net>에 게재)
- 시 상 식 : 2025년 11월 16일(일) 오후 2시 광양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 작품전시 : 2025년 11월 15일(토) ~ 19일(수) 광양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시상내역

-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광양시장·광양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광양예총회장·(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장 상장
-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장 상장 / 출품작의 20% 이내(입상작포함)

기타사항

- ▶ 수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 ▶ 수상작의 초상권 등 민·형사상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
-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명
- ▶ 수상 작품은 출품한 필름 또는 디지털 이미지 작품은 긴 변이 3,000pix 이상의 출품된 파일을 메일로 제출.
이메일 : sik0068@naver.com <0068 : 숫자> 미제출시 상권 취소
- ▶ 입상자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

후 원 : 광양시, 광양시의회, 한국예총광양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 새만금 전국사진 촬영대회

2025년 11월 2일(일) 개회식 오전 10시
(우천불구, 식전행사 9시)

<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일원 >

접수마감: 2025년 12월 5일(금)(소인유효)

촬영대회 전날(11월1일) 사진강좌를 1시~5시까지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촬영대회와 동시접수 시 사진강좌 6만원 → 5만원 1만원 할인)

대회장소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
원 일원(군산시 내항2길 32)

참가비 3만원(중식제공)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참가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작품내용 당일 모델 중심 촬영

작품규격 11" X 14" 인치 컬러 및 흑백

접수처 군산시 축동1길 6-3 피렌체빌딩2F
지부장 010-4610-9007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심사일시 추후공지

심사발표 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pask.net

시상·전시 추후 공지

시상내역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 군산시장, 군산시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점 :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 은, 동, 가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군산전국학생 사진공모전

여러분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공모 가능

2025.12.5(금)까지 E-mail 접수

출품자격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출품료

없음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학교생활상, 체험학습현장.
미발표 자유작으로 컬러 및 흑백 사진

작품규격

JPEG 파일접수(긴축 3000px 이상) -
휴대폰 사진도 가능함

접수처

군산지부메일 : bebe9006@naver.com

출품요령

접수 시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교
명, 학년을 정확히 작성하여 파일로 보낼 것

문의처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기타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시상 및 전시

심사일시: 추후 공지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추후 공지 (사협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전시기간: 2025년 12월 20일(토) ~ 12월 31일(수)
전시장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상내역

대 상 1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상 상장
최우수상 1점 - 군산시장 상장
우 수 상 2점 - 군산시 교육장상장(1점)
- 군산시 시의장상장(1점)
가 작 3점 -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장 려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입 선 3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제40회

군산 전국 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5년 12월 5일(금) 소인유효

응모요령

출품자격: 전국 사진애호가(외국인 환영)
참가비: 1인당 3만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미발표 자유작(핸드폰 사진도 출품 가능)
작품규격: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 제외)
접수기간: 2024년 12월 5일(금) 소인유효
접수처: 군산시 축동1길 6-3(수송동) 파렌체빌딩2F
010-3676-1119, 010-4610-9007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유의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기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 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 문의 :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심사 및 전시·시상

심사일시: 추후 통보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pask.net>)
전시기간: 2025년 12월 20일(토)~31일(수)
전시장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상내역

-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군산시장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동상 3점: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상 상금 각 20만원
- 기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상장
-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상장
-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 후원: 군산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군산지회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500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업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업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원목액자	사진용지	축제·행사 장비대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Natural, Brown 11R=6,600원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2025 "사계절 매력 넘치는 감성도시 창원"

창원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접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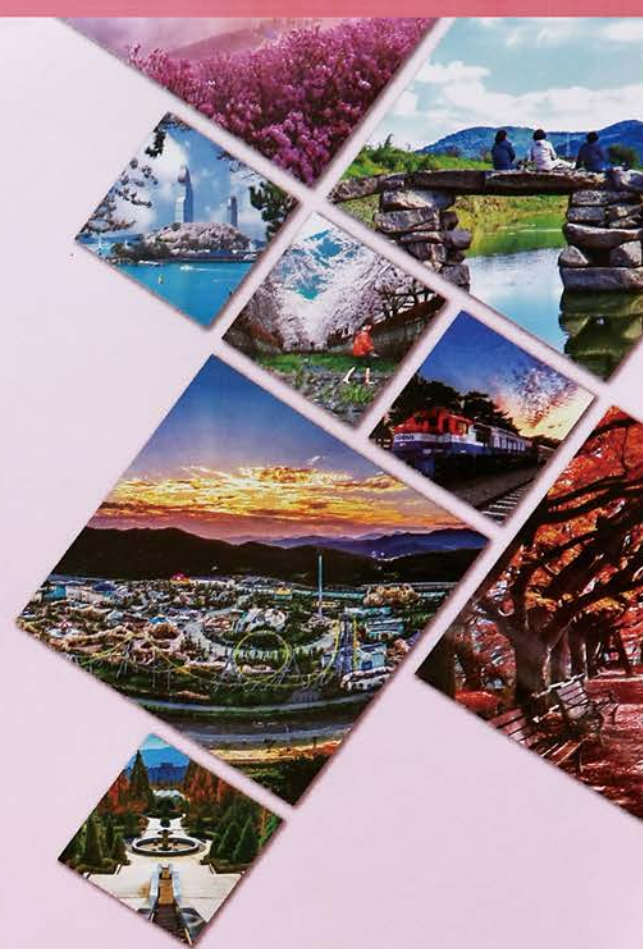
2025.10.15.~11.14. 18:00 도착분

공모주제

사계절 매력 넘치는 감성도시 창원

공모자격

제한 없음 (단, 개인자격으로만 응모 가능)



공모내용

- 창원 주요 관광지를 소재로 한 작품 중 미발표작으로
- 창원 명소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 등을 담은 사진
 - 활기찬 창원의 축제 등을 표현한 사진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등)
 - 나만 알고 있길 아까운 특별한 장소를 담은 사진

소재분야

소재분야	내 용
자연자원	산, 강, 섬, 계곡, 호수, 바다, 저수지, 다리, 생태환경, 공원 등
주요 관광지	(라이강의 다리, 창원수목원, 경화역공원, 여좌천, 동성, 315해양누리공원 등)
관광명소	전통문화 (사찰, 문화유적, 전통마을, 박물관, 기념관, 역사유적지 등) 테마길 (가로수길, 카페거리, 상상길, 둘레길, 진해군항마을역사길, 진해드림로드 등)
관광체험	문화예술 공연, 농어촌 체험, 레포츠 등
축 제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K-POP 월드페스티벌 등
기 타	숨은 매력이 넘치는 창원 관광지

작품활용

입선작 이상 작품집 제작/배포 및 사진전시회 전시작품으로 활용
창원관광 홈페이지 사진자료 게시
창원관광 홍보자료 활용

문의사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055-543-1158

주최 | 창원특례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접수방법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작품규격: 11 x 14인치 흑백 또는 칼라사진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으로 필름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작품은 원판 필름이나 JPG 또는 RAW 원본파일 5MB 이상 드론사진 (항공촬영허가증 제출, 입상권 제외)

출 품 료: 1인 20,000원

제출서류: 출품신청서, 작품사진 (원본파일은 수상자에 한해 제출)

접 수 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1 (진해카메라스튜디오)

심사 및 시상식

심 사: 2025년 11월

당선발표: 창원시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시 상

사진전 개막 시 상장 수여 진행 (시상금은 계좌입금)

구 분	작품 수	시상금	비고
계	71점	1,300만원	
금 상	1점	300만원	
은 상	2점	200만원	각 100만원
동 상	3점	150만원	각 50만원
입 선	65점	650만원	각 1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고문 참고